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이 받으신 별과 훈장들은
아버님과 함께하신 수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그리며,
아버님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바칩니다.

2023. 7.

백선엽 장군 맏딸 백 남 희

My father, said that the stars and medals he received were not his
alone, but represented the blood and tears of the countless brave souls
who served alongside him.
In memory of my father, I dedicate this book to him and all those who
stood by his side with my heartfelt gratitude.

July 2023

Paik Namhi

Eldest daughter of General Paik Sun-yup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서

2023년 7월

백선엽 장군 맏딸 백남희

아버님이 떠나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관없이 세월은 흐르나 봅니다.

아버님을 잃은 상실감은 아직도 저에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리울 때마다 물려주신 47개의 훈장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사진 찍고, 훈장의 이름과 기록, 그리고 그에 따른 아버님의 업적을 찾아 수집하다 보니 어느덧 한 권 분량의 책자가 되었습니다.

훈장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가면서, 이 훈장들이 왜 아버님에게 제일 소중한 유품이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훈장들은 수많은 분들의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아픔, 용맹과 공로,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이며, 공산주의 남침에 대항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업적들은 국군의 큰 명예가 되었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으며,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훈장들이 아버님만이 아니고 아버님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훈장들로 국민들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책자를 책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도 못 하고 있을 때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께서 저의 보잘것없는 책자를 보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기쁘고 고맙기만 했는데 막상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모든 점에서 너무나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곳 역사적인 경상북도 칠곡 다부동에서 아버님의 추모식을 드릴 때마다, 아버님과 칠곡의 끊을 수 없는 인연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칠곡은 아버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다부동은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가장 많은 희생자가 생긴 곳이고,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승리의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아버님은 다부동 전투를 이끌면서 사수의 일념으로 쓰러져가는 수많은 전우들의 모습을 보며 하늘이 무너지고 살이 베여나가는 것 같은 쓰라림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아버님은 항상 괴로워했고, 1사단 전사자들의 명부와 다부동에서 쓰러져간 무명용사들의 묘가 있는 이곳 다부동전적기념관 내 무명용사들의 묘 옆에 묻혀 그들의 혼령을 위로하고 전우들과 함께 영원히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혼령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다부동 전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근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포화를 무릅쓰고 탄약, 물과 식량, 그리고 보급품을 지게에 메고 날랐다고 하셨습니다.

Anniversary

전쟁은 그 지역 주민들의 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님께서는 늘 칠곡군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하셨습니다. 아버님을 대신하여 칠곡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언제나 아버님께서서는 훗날을 걱정하며, 당신이 살아생전 제일 귀중하게 여긴 유품은 6·25전쟁과 관련해 받은 36개의 훈장들이라고 말하며, 저더러 이 훈장들을 잘 간수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내가 받은 훈장들과 대한민국 첫 4성장군이라는 명예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과 6·25전쟁에서 젊음을 희생한 한국군과 미군, 유엔의 깃발 아래서 목숨을 던진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전쟁의 끔찍한 잔해와 고난에 시달리면서도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줬던 전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국 없이, 부친 없이 가난 속에서 술한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며 살았던 아버님은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죽음의 문턱에서 도움을 청하는 박정희 소령을 구해준 아버님의 연민, 빨치산 공비토벌작전 때 ‘귀향증’이라는 전단을 뿌려 자유를 찾는 이들에게 제2의 기회(Second chance)를 주었던 자비심, 9·28 수복 때 서울에 숨어 있던 낙오 장병들을 처벌하는 대신 모든 과오를 용서하고 복진 작전에 함께 했던 아버님의 관대하신 마음, 전쟁 중 부모 잃은 아이들을 모아 ‘백선고아원’을 설립한 자애심, 부상자들을 보면 손을 어루만져 주며 아픔을 나누고, 화랑 담배를 권하고 나누어 피웠던 아버님의 따뜻한 전우애가 있습니다.

언제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던 아버님은 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저를 많은 행사에 데리고 다니며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오래전 6·25 행사 때 어떤 노병께서 저에게 “백 장군님은 6·25전쟁 동안 잠을 전혀 안 주무시고 싸우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밤에 사령관 텐트의 침대는 언제나 비어 있었고, 텐트 불빛 밖으로 보이는 장군님의 그림자는 언제나 통신병 옆 무전실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그림자를 지켜보는 우리 군인들은 밤에 졸리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버지께 여쭙어보니, 아버님은 전쟁 중 사령관실 보다는 늘 무전실에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일본일초가 생과 사를 가르기 때문에 통신병이 지휘관실과 무전실을 오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저를 무릎에 앉히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아버지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제가 그 대화의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백선엽 대장이 그의 여섯살 난 딸에게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훗날 그의 딸, 그의 국민, 그의 나라에서 백선엽이라는 이름이 존경받을 수 있게 여생을 살겠노라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 또 다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깨끗하고 근엄한 삶을 살아 왔다는 것과 남은 여생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한국의 첫 4성장군이라는 명예의 소중함과 역사적 책임감을 늘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영령들에게 면목이 없고 수많은 장병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욕심 내지 않고, 함부로 권력이나 정권을 탐내지 않으며 군인으로서 정치에 휩쓸리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공직에서 떠난 말년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외국기업의 제안에도 늘 변치 않는 자세를 이어가셨습니다. ‘큰돈을 보고 움직인다면 전쟁터의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으로 주어진 명예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념이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사심을 모두 버리고 참고 이겨내며 오로지 군과 나라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을 희생이나 짐이라고 생각지 않고, 오직 군과 국민 그리고 나라를 위한 의무요, 애국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2019년 가을, 아버님은 자신이 암이란 진단을 받고 99세 생일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는 어떤 행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날은 국립 서울 현충원에 가서 전우들과 무명용사들이 있는 곳을 둘러보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서는 죽어가는 전우들과 같이 죽지는 못하였어도 함께 싸웠던 전쟁터에 같이 묻히고 싶다 하면서 70년 전 6·25전쟁 당시 부하들과 함께 싸웠던 8곳의 위치도를 직접 그려 주며 그곳의 흙들을 퍼오라고 하셨습니다. 8곳의 전쟁터는 문산 파평산, 파주 봉일천, 한강 나루터, 다부동 불령앨리, 안성 입장초등학교, 주문진 백사장, 지리산 남원초등학교, 그리고 화천 소토고미입니다. 아버님이 원하신 대로 먼저 가신 전우들의 피가 섞인 그 흙이 아버님 관 위에 뿌려졌습니다.

아버님이 병실에서 유언으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가 만약 대전 현충원에 묻히게 된다면 그 전에 서울 국군 묘지에 가서 전우들이 묻힌 곳

Anniversary

을 꼭 들러 마지막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평택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를 찾아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거듭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때 아버님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시겠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많은 애를 써주신 미 8군 사령관 빌스 장군(General Bills)께 뒤늦게나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아버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럽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님께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버님의 5일간의 육군장 동안 수천 명의 고위 관리들과 예비역 장성들, 국군장병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주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각 지방 도시, 그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추모 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모임을 갖기도 힘든 시기였지만 7월의 땀별, 또 끊임없이 쏟아지는 장맛비에 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하여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버님 백선엽 대장의 유언인 “조국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한마음으로 지켜 주시는 한미동맹재단 정승조 장군님, 주한 미군 전우회 브룩스 장군(General Brooks),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 라 캐머리(General LaCamera) 연합 사령관님,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님, 안병석 한미연합군 부사령관님, 신희현 제2작전 사령관님, 벌레슨 장군(General Burleson) 미 8군 사령관님, 그리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 정희용 국회의원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 김재욱 칠곡군수님, 심정보 칠곡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님의 업적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버님의 훈장들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책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아버님이 쓰신 회고록 한 대목에 “그간 살아 오면서 한시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은 6·25전쟁 기간 중 수많은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과 그 유족들의 아픔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6·25전쟁의 진정한 영웅들은 바로 그 전우들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셨던 아버님과 그와 함께한 전우들의 영전에 이 훈장의 기록들을 바칩니다.

Publisher

At The Dabudong War Memorial Museum

July 2023

Paik Namhi (General Paik Sun-yup
Eldest daughter)

It's been three years since the passing of my father, General Paik Sun Yup. I suppose time goes by in spite of the pain. But the feeling of loss still lingers.

In the months following my father's passing, whenever I longed for him, I turned to cataloguing the 47 medals he left behind. I took photos, researched the medals' names and relevant records, and learned the meaning of every single one, all to understand why my father considered them his most treasured keepsakes. I came to realize that the medals embodied the numerous sacrifices and sufferings, the courage and achievements of so many heroes who overcame the fear of death to protect their homeland during the Korean War. The medals also represented the patriotism of the Korean people, who stood fast to safeguard liberal democracy against the clutches of the communist aggressors.

This collective valor brought great honor to the Korean military and global attention to the nation it defended. Accordingly, I want my father's medals to be seen not as mere awards presented to a four-star general, but instead as symbols of national pride, the comrades who fought alongside him, and all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at end, I gradually put together a booklet on my father's medals. But the thought of making this booklet into a book never crossed my mind until I had a conversation with Governor Lee Chul Woo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After reading my humble work, he offered to help publish it as a full-length book. On hearing his kind offer, I felt an immense sense of joy and gratitude. But while preparing this book for publication, I must admit that I felt overwhelmed in every way.

That province's county of Chilgok held special meaning for my father. I am reminded of this inseparable connection every time I attend the memorial ceremony for him at Dabudong in Chilgok. My father led the South Korean forces

Anniversary

at Dabudong, the site of the Korean War's fiercest battle. It saw the conflict's highest casualties, but also became the decisive victory that changed the tide of the war and rescued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brink of annihilation. Even decades later, the tremendous cost of victory caused my father to recall the agony of watching his men fall under enemy fire. He said it felt as if the sky had collapsed and his own flesh was being torn apart.

This suffering was felt not only by the soldiers, but by the local civilians, too. Many of them carried ammunition, food, water, and other supplies through enemy fire to the Korean and allied forces. Because my father knew that these civilian efforts made victory possible, he always felt deep gratitude for the commitment and sacrifice of the people of Chilgok County.

In his honor, I wish to send my own gratitude to County Executive Kim Jae Wook and the people of Chilgok County.

Before he passed away, my father worried about the future. He urged me to take good care of his medals, especially the 36 he cherished most of all—the ones that were awarded to him for hi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 the Korean War.

Father told me: "These medals and promotions were not presented for my own personal achievements. They were dedicated to all those who sacrificed everything they had for liberty; to the ROK and US servicemembers who yielded their youth to a greater cause; to every individual who gave their life under the UN flag; and to the civilians who withstood the war's tribulations and waited patiently with the sole belief that justice would emerge victorious. It is on their behalf that I became the first four-star general in Korean history."

These remarks personified my father's lifelong character. When he was a child-

due to the early death of his father, the poverty of the land, and the Japanese occupation-he was fatherless, homeless, and country-less. And yet, despite all odds, he overcame the pain and hardships of his upbringing and always treated people with a warm heart.

For example, before the Korean War, 12 military officers were accused of belonging to a communist cell and were sentenced to death. However, my father advocated for anyone who renounced communism to receive a pardon. He did this not because he was sympathetic to communism but because he believed in forgiveness and second chances. In the end, he was able to pardon one of the accused. That officer was named Park Chung Hee, and he would go on to become the third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suppression of Red guerrillas, my father also showed mercy to the guerrillas and North Korean partisans hiding deep in the mountains. He dropped pamphlets from airplanes and guaranteed the safety of anyone who came out of the mountains holding one. Later, my father maintained his loving compassion by establishing the PaikSun Orphanage for war orphans.

His magnanimity shone through again during the Second Battle of Seoul, where he pardoned military deserters hiding in the city who were willing to bolster his ranks. This was done even against the advice of his staff. And visiting battlegrounds throughout the War, he felt brotherly love when he held the hands of wounded soldiers and shared one of his Hwarang cigarettes.

These virtues were my father's hallmarks, and I feel grateful that I could experience them myself. He was a busy man but he enjoyed spending time with me, trying his best to take me to as many places and events as possible.

A long time ago, while at an event for the Korean War Memorial, an old soldier told me that my father fought the Korean War without any sleep. He further explained that my father's cot inside the commander's tent was always empty, and that when

Anniversary

soldiers looked for him, they always found his silhouette illuminated by the lamps inside the radio communications tent as he sat on a chair beside the signalmen. Following his example, the soldiers pushed on to fulfill their missions, refusing to give in to exhaustion. Upon hearing this legend-like tale, I asked my father about its truth. He told me that, yes, he did spend more time in the radio communications tent than at the commander's office. Since even one second could have determined the difference between life or death on the battlefield, he stayed put in the radio communications cell to reduce the traveling time for the signal operators between that cell and the commander's office.

One day, when I was a child, my father sat me on his lap and promised me one thing: "I have nothing to hand down to you, but it is my wish that whenever you find yourself in distress, you may mention my name and people will rush to your side." It took me years to learn finally the true meaning of those words. It was not self-praise to his 6-year-old daughter. Instead, it was a promise, a resolution, that he would continue living up to his reputation, and that his name would remain honorable to his daughter, his people, and his country. He always bore in mind that he had lived with integrity and dignity, and that he must continue to do so for the rest of his life.

In accordance with these values, my father never took for granted the honor of becoming the Republic of Korea's first 4-star general, or forgot the historic obligations that came with it. If he were to do something undignified, he felt he would lose face to the heroes who died for their homeland, wronging countless soldiers.

As a result, my father never spoke or coveted out of self-indulgence, and never let himself be corrupted by power or political influence. Instead, he committed himself to stay unaffected by politics and remain a true soldier.

Even after he retired from public service, in the later days of his life, his stance remained the same. He stood his ground even as large foreign corporations attempted to lobby him. He maintained his belief that if he were swayed by monetary gains, the collective honor derived from the sacrifice of numerous

servicemen on the battlefield would be compromised.

He had renounced all self-interest to commit his life to the army and the Republic of Korea. But he never thought of this commitment as a sacrifice or a burden; instead, he considered it his duty to the military, his people, and his nation. In short, it was an act of patriotism.

In the autumn of 2019, my father was diagnosed with cancer. Due to this illness, he realized that his 99th birthday would be his last. Thus, he planned not to attend any events, and instead spent the day at Seoul National Cemetery, where his brothers in arms and the unknown soldiers lay. He told me that, despite him outliving these brothers who had passed before him, he wished to be buried at the battlegrounds where he had fought tooth and nail to defend his people. He gave me hand-drawn maps of the battlegrounds where he had spilt blood with his men and asked me to collect the earth from these eight locations. They were: Munsan-eup Papyeong Mountain, Paju Bongilcheon, Han River Ferry, Dabudong Bowling Alley, Anseong Ipjang Elementary School, Jumunjin Beach, Jirisan Namwon Elementary School, and Hwacheon Sotogomi. So, as he wished, the soil that had mixed with the blood of his brothers was interred with him at his funeral.

I can still vividly recall my father's last words on his deathbed: "If I am buried at Daejeon National Cemetery, please have my body pay a visit to the burial places of my brothers in arms at the Seoul National Cemetery, so I can pay my last respects. Also, go visit Camp Humphreys, to reaffirm the solidarity of the ROK and US alliance." I want to thank belatedly the then-US Eighth Army Commander, Lieutenant General Michael Bills, who promised to do anything he could for my father and put in extra effort to prepare everything. Despite all the arrangements, I could not completely honor my father's will due to the strong objections of a few people. I'm still heartbroken. Above all else, I cannot help feeling inadequate because I could not fulfill his final wish.

Nonetheless, over the five days of my father's military funeral, countless numbers of

Anniversary

high-ranking officials, retired generals, and servicemembers paid their respects. Private citizens also set up temporary memorials in key cities and at Gwanghwamun Square in Seoul. Despite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policies prohibiting gatherings, and despite the scorching heat of July and the seemingly endless downpour of the monsoon rains, hundreds of thousands of citizens stood in line for hours to pay homage to my father. I have not been able to send my words of appreciation to each one of them, but I would like to offer them my warm, belated gratitude.

I also want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and bow my head to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my father's third memorial service: General (ret.) Jeong Seung Jo, the president of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General (ret.) Vincent K. Brooks, the chairman of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the ROK Defense Minister Lee Jong Sup; USFK-CFC-UNC Commander, General Paul LaCamera; the ROK Army Chief of Staff General Park Jeong Hwan; Deputy Commander for the CFC General Ahn Byung Seok; ROK 2nd Operations Command Commander General Shin Hui Hyun; US Eighth Army Commanding Lt. General Willard Bursleson; Minister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ark Min Sik; Representative Jung Hee Yong; North Gyeongsang Provincial Governor Lee Chul Woo; Chilgok County Executive Kim Jae Wook; Chilgok County Council Chairman Shim Chung Bo; and respectable others.

Once again, I would like to send my words of gratitude to Governor Lee Chul Woo for encouraging and guiding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The following pages have given me the opportunity to share my father's feats with a wide readership, and to spread appreciation of my father's medals, which I hold so dear.

I would like to allow my father to have the last word. In his memoir, he wrote: "Throughout the course of my life, the noble sacrifices of countless brothers in arms and the sufferings of their bereaved families never faded into oblivion. It is thanks to them that I am here today and the Republic of Korea stands as it is. The true heroes of the Korean War are none other than those brothers in arms." To my father who carried this gratitude with him throughout his life, and to the spirits of the fallen soldiers who stood alongside him, I dedicate this book.

6·25전쟁 개요 및 일지

6·25전쟁 개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소련제 전차를 앞세우고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남침을 하였다.

개전 초기 국군은 중무장한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열세한 병력과 빈약한 무기로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8월 초에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었다.

전열을 가다듬은 국군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이어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 반격을 실시한 결과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였고, 10월 26일에는 한중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6·25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전쟁의 양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전쟁으로 변하였고, 전투는 38도선 부근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1951년 7월 10일 휴전 협상이 열리면서 전선은 현 휴전선 부근에서 고착된 채 치열한 고지 쟁탈전만 치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조인하게 되었다.

이 전쟁으로 국군 62만여 명, 유엔군 15만여 명, 공산군 103만여 명, 남북한 지역 민간인 280만여 명 등 총 460만여 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으며, 남북한 간 상호불신을 심화시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등 각종 폐해를 남겼다.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Korean War Overview and Timeline

Korean War Overview

Communist North Korea launched a surprise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at 4:30 a.m. on June 25, 1950, deploying Soviet-made tanks across the 38th parallel in an attempt to impose communism upon the South.

At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the South Korean military fought with a small and poorly-equipped force to repel the much larger and better armed North Korean military's advancement into the South. Despite mustering all their strength, they suffered significant setbacks due to the North's overwhelming forces. Within three days of the war's outbreak, Seoul had fallen, and by early August, they had been pushed back to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After regrouping and reorganizing, the South Korean military, along with the UN forces who had joined the fight for freedom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aunched a full-scale counterattack from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following the successful landing at Incheon. They recaptured Seoul on September 28, 1950 and continued their advance until they reached the Yalu River on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by October 26, 1950.

However,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Communist Chinese Army, the Korean War transitioned into a new phase in which the nature of the conflict shifted to a war between the free and communist camps. The battles unfolded as a series of offensive and defensive engagements near the 38th parallel.

On July 10, 1951, ceasefire negotiations began, and the battlefield became stagnant near the current Military Demarcation Line, with fierce battles to capture strategic hills taking place. Eventually, on July 27, 1953, 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at Panmunjom.

This war resulted in an estimated 4.6 million casualties, including around 620,000 South Korean soldiers, 150,000 UN forces, 1,030,000 communist soldiers, and 2,800,000 civilian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Furthermore, the conflict ravaged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deepened the mutual distrus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lidifying the division and leading to numerous negative consequences.

* Source: Department of Defense (RoK), Military Compilation Research Institute

6 · 25전쟁 일지

연도	일자	내용
1950년	6. 25.	북한군 불법남침, 6·25전쟁 발발
	6. 26.	유엔 안보리, 북한군 침략중지 결의
	6. 28. ~ 7. 3.	한강선 방어
	6. 28.	유엔 한국군 참전 결의
	7. 5.	오산전투(美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북한군과 첫 교전)
	7. 7.	유엔군 사령부 창설(총사령관에 맥아더 장군 임명)
	7. 14.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7. 20.	대전 실패
	8. 1.	낙동강 방어선 구축
	8. 5. ~ 9. 15.	낙동강 방어선 전투
	9. 15.	인천상륙작전(미 제10군단, 국군 해병대 · 육군 제17연대)
	9. 28.	국군과 유엔군 수도 서울 탈환
	10. 1.	국군과 유엔군 38도선 돌파
	10. 9.	국군과 유엔군 북진작전 개시, 중공군 압록강 도하 개시
	10. 19.	국군과 유엔군 평양 입성
	10. 25.	중공군 제1차 공세
	11. 25.	중공군 제2차 공세
	12. 14. ~ 12. 24.	흥남철수작전
	12. 31.	중공군 제3차 공세
1951년	1. 4.	서울 재실함(1·4 후퇴)
	2. 11.	중공군 제4차 공세
	3. 15.	서울 재탈환(국군 제1사단 제15연대)
	4. 22. ~ 5. 16.	중공군 제5차 공세
	7. 15.	개성 정전회담
	10. 25.	판문점 정전회담 재개
1952년	2. 18.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
	4. 28.	공산군 측 요구로 정전회담 무기한 휴회
	6. 12.	정전회담 재개
1953년	3. 5.	소련, 스탈린 사망 공식 발표
	6. 18.	반공포로 석방
	7. 27.	정전협정 체결(판문점, 22:00시를 기해 전 전선 전투 중지)

* 자료제공: 국가보훈부

Korean War Timeline

Year	Date	Details
1950	June 25	North Korean forces unlawfully invade South Korea and the Korean War breaks out.
	June 26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s a resolution condemning North Korean military aggression.
	June 28-July 3	South Korean forces defend along the Han River against the onslaught of the North Koreans.
	June 28	The U.N. decides to intervene on the side of South Korea.
	July 5	Battle of Osan: the first engagement between North Korean forces and U.S. Task Force Smith
	July 7	United Nations Command is established, with General MacArthur appointed as the Commander-in-Chief.
	July 14.	The South Korean military transfers operational command of the theater to United Nations Command.
	July 20	Daejeon and Jeonju fall to North Korean forces.
	August 1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is established.
	August 5~September 15	The Battle of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September 15	The Battle of Incheon: U.S. 10 th Corps, the ROK Marine Corps, and the RoK Army 17 th Regiment land at Incheon.
	September 28	Seoul is recaptured by ROK and UN forces.
	October 1	UN and ROK forces breakthrough the 38 th parallel.
	October 9	ROK and UN forces begin to advance northward and the Chinese Communist Army crosses the Yalu River.
	October 19	ROK and UN forces enter Pyongyang.
	October 25	The first Chinese Offensive begins.
	November 25	China launches the Second Phase Offensive.
	December 14~24	Hungnam Evacuation
	December 31	China launches the Third Phase Offensive.
1951	January 4	Seoul again falls to North Korean forces (January 4 th Retreat)
	February 11	China launches the Fourth Phase Offensive.
	March 15	Seoul is retaken by the 15 th Regiment of the ROK Army's 1 st Infantry Division
	April 22~May 16	China launches the Fifth Phase Offensive.
	July 15	Armistice talks take place in Kaesong.
	October 25	Resumption of armistice talks in Panmunjeom
1952	February 18	Geoje Island prison camp riot breaks out.
	April 28	Armistice talks are indefinitely suspended at the request of the Communist forces.
	June 12	Armistice talks are resumed.
1953	March 5	Stalin's death is officially announced by the Soviet Union.
	June 18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are released from detention.
	July 27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at Panmunjeom) and battles were suspended on all front lines effective from 22:00 hours

* Source: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oK)

6·25 전쟁 주요 전개도



* 참고자료: 국가보훈부, 6·25전쟁 1129일

6·25전쟁 인명 피해 현황

국군 및 민간인

국군 피해					민간인 피해					
계	전사	부상	실종	포로	계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621,479	137,899	450,742	24,495	8,343	990,968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UN참전국

지원 구분	참전국	참전		피해					
		연인원	참전형태	계	전사 / 사망	부상	실종	포로	
전투 지원 (16)	미국		1,789,000	육·해·공군	133,996	33,686	92,134	3,737	4,439
	영국		56,000	육·해군	4,909	1,078	2,674	179	978
	캐나다		26,791	육·해·공군	1,761	516	1,212	1	32
	터키		21,212	육군	2,365	966	1,155	-	244
	호주		17,164	육·해·공군	1,584	340	1,216	-	28
	필리핀		7,420	육군	468	112	299	16	41
	태국		6,326	육·해·공군	1,273	129	1,139	5	
	네덜란드		5,322	육·해군	768	120	645		3
	콜롬비아		5,100	육·해군	689	213	448		28
	그리스		4,992	육·공군	738	192	543		3
	뉴질랜드		3,794	육·해군	103	23	79	1	
	에티오피아		3,518	육군	658	122	536		
	벨기에		3,498	육군	440	99	336	4	1
	프랑스		3,421	육·해군	1,289	262	1,008	7	12
	남아공화국		826	공군	44	36			8
	룩셈부르크		100	육군	15	2	13		
의료 지원 (6)	인도		627	야전병원	26	3	23		
	노르웨이		623	이동외과병원	3	3			
	덴마크		630	병원선					
	스웨덴		1,124	적십자병원					
	이탈리아		128	적십자병원					
	독일		117(의사)	적십자병원					
합계	22개국		1,957,733		151,129	37,902	103,460	3,950	5,817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단, 독일은 국방부 국제정책과 자료 확인

백선엽 장군의 이력과 업적

출생 및 학력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덕흥리에서 출생. 백선엽 장군은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태어난다.
1941년 12월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학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학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만주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한다. 1942년 소위로 임관하여, 1943년 2월에 명령을 받아 전임한 간도특설대는 팔로군(중국 공산당) 토벌 작전을 하고 있었다. 간도특설대는 1938년 12월 간도 지역의 소련군 공산당 게릴라와 싸우기 위해 창설된 부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이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여 해방된 조선 땅에 소련군이 들어와 북한을 점령하자, 백선엽 장군은 김일성 공산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그해 12월 남한으로 내려왔다.

군생활 (15년간)

1946년 1월 15일	26세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다. 아직 이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며, 육군이 아니라 남조선 국방경비대라고 불리었다. 남한으로 내려온 백선엽 장군은 제일 먼저 군에 임관하여 군번은 54번이다.
1946년 2월	26세	중위로 국방경비대에 창설위원으로 임관한 백선엽 중위는 5중대(약 60 ~ 255명)의 중대장으로 부임받는다.
1946년 9월	26세	대대장 소령으로 부산 제5연대(약 300 ~ 1,000명)를 창설
1947년 1월 1일	27세	연대장 중령으로 부산 제5연대(약 1,000 ~ 3,000명)를 창설
1948년 4월 11일	28세	통위부 정보국장 / 국방경비대 정보처장을 겸직
1948년 8월 15일	28세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
1948년 12월 25일	28세	대령 진급
1949년 1월	29세	대령으로 정보국장으로 있을 때, 숙군 작업으로 군 내부 좌익 공산 세력 축출. 제주 4·3사건으로 시작된 군부 내 좌익 세력은 그해 10월 여순 반

군생활

(15년간)

란사건 후 군부에 깊숙이 침투하였고, 이에 좌익 활동에 가담한 장병들을 일거에 척결하는 대규모 숙군을 단행하게 되었다.

당시 통위부(현 국방부) 정보국장으로 숙군을 전담한 백선엽 대령은 좌익 활동 가담자들을 철저하게 색출 처리하면서도 그들이 죄 없이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이승준 육군참모총장에게 건의하여 수감된 장병들을 직접 면담하며, 훗날 이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백선엽 대령은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그중 박정희 소령(훗날 박정희 대통령)을 극적으로 구명하게 되었다. 숙군작업의 지대한 성과는 그 이듬해 벌어진 6·25전쟁 중 국군부대가 적에게 집단 투항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증명되었다.

1949년 7월 30일	29세	광주 제5사단장(약 3,000 ~ 15,000명)
1950년 4월 22일	30세	문산 제1사단장 겸 서울 육본보병(참모)학교 학생
1950년 6월 25일	30세	북한의 공산주의 침략으로 6·25전쟁 발발. 이때 백선엽 대령은 서울 육군 참모학교에서 교육 중이었다.
1950년 6월 25일	30세	임진강 전투. 임진강에서 3일간 북한군 공세 저지 일요일 새벽 4시 30분, 북한 김일성 공산당의 인민군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였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년도 안 되어 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장비도 매우 열악하여 국군은 이 당시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의정부 쪽이 무너지고,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다. 그 혼란 속에서 1사단을 맡았던 백선엽 대령은 3일 동안 임진강, 문산, 파주 일대에서 적에 대항하여 지역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의 함락을 최대한 지연시켰다. 당시 국군 소총으로는 소련 전차(탱크)를 뚫지 못해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육탄 공격조를 만들어서 폭약과 수류탄을 몸에 지닌 채 적 전차에 뛰어들어 자폭하는 투혼으로 목숨 건 희생을 감행하며 최대한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시켰다. 그러나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유일한 한강다리마저 파괴되고 후방보급이 끊어져, 설상가상으로 더 이상 쏠 포탄이 남아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게 된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백선엽 사단장은 반격 계획을 중지하고 1사단을 해산시키며, 흩어지는 1사단을 시흥보병학교에서 재편할 것을 약속한다. 그마저 어렵다면 마지막에는 지리산에 들어가서라도 최후까지 싸우겠다는 맹세를 하고 뿔뿔이

흘어졌다. 그리고 사단장 일행은 한강을 건너기 위해 행주 나루터로 이동하였다. 6월 28일 저녁 무렵이었다. 그리고 보니 꼬박 나흘 동안 물만 마시고 한 끼의 식사도 하지 못했다. 또 군복이나 군화를 바꿀 시간도 없어 구두 뒤축이 떨어져 나가 튀어나온 못이 발을 파고들어 군화 속이 피투성이였으나 아픔을 몰랐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다. 나흘 동안 한 번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물만 마신 사단장을 위해 나루터에 먼저 도착해 있던 참모들이 어디서 구해 왔는지 닭을 삶아 놓고 저녁을 드시라고 권했으나 사단장은 “내 군사들이 못 먹는데” 하며 끝내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돌아가실 때까지도 백선엽 대장은 그날을 잊지 못하고 백숙을 끝내 못 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어선을 타고 한강을 건너갔다.

1950년 7월 25일	30세	한강 도하 이후 낙동강까지 지연전 과정에서 1사단은 기적적으로 재편성, 장비도 보충하여 정상적인 부대로 보강하여 낙동강선에 임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백선엽 1사단장은 상주에서 준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리하여 낙동강 방어에 주동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 7월 25일	30세	1사단장, 준장 진급
1950년 8월	30세	낙동강 최후 방어선 다부동 전투 승리 백선엽 준장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낙동강을 낀 경상북도 칠곡 다부동 일대의 산악지대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한다. 임진, 정유년 국난 때 왜군을 방어하던 천연의 요새 성터로서 유학산, 수암산의 긴 능선이 동서로 뻗어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으로 판단한 백선엽 사단장은 “이 산맥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 선이 사단의 최후 저지선이다. 우리가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조국의 운명도 끝이다”라고 하였다. 1사단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욕망, 투지와 사수의 일념으로 7,000여 명의 병력으로 우리보다 3배가 많은 2만 7천 명의 병력과 10배나 강한 화력으로 공격해오는 적을 맞았다. 이 전투는 북한 3개 사단이 국군 1사단을 집중 공격한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한 결전이었다. 최후의 조치로 백사단장은 미 워커 장군에게 후원군을 요청하여 역사상 최초의 한미합동작전을 이루었다. 그가 미 25사단 27연대장 마이켈 리스 대령과 시작한 한미합동작전이 처음 이뤄진 곳이 경북 화령장이다(다부동 근처). 55일이 걸린 다부동 전투 중 제일 비참했던 328고지는 9번을 뺏기고 9번을 되찾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백 사단장은 후퇴하는 장병들에게 “내가 앞장설 터이니,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쏘

군생활

(15년간)

라” 하며 반격하였다. 마침내 1사단은 승리를 거두어 미군, 유엔군과 함께 다부동 방어선을 넘어 반격 작전을 시작했다. 55일에 걸친 다부동 전투는 경상북도 칠곡 군민들의 헌신과 희생도 컸다. 드디어 6·25전쟁을 100일 안에 끝내려던 북한의 김일성 의도를 좌절시키고 전쟁의 흐름도 바꾸어 놓았다. 1사단은 최초로 미군,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북진했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총반격 작전으로 북한군은 급격히 무너졌다.

1950년 9월 15일	30세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함
1950년 10월 국군 1사단의 북진 작전	30세	그 당시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는 평양 공격에 기동력과 화력이 우세한 미군을 앞세워 신속히 진군하여 평양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다부동에서 승리한 국군 1사단은 본격적으로 북진을 계획하던 중, 미군 사단의 후속지원 부대로 후방을 따라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을 접한 백선엽 장군은 미 밀번 군단장을 찾아가 “북한의 수도 평양 공격에 국군이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임진강 전투 이래 쓰라린 후퇴를 겪은 전우들과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수많은 전우들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도 국군이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그리고 백선엽 사단장은 “우리 차량은 많지 않으나 밤낮으로 행군할 투지가 있다. 한국은 산이 험하고 도로가 나빠 불철주야로 행군하면 오히려 국군이 걸어서 평양에 먼저 입성할 수 있다. 게다가 평양은 내 고향이라 그 지리를 나만큼 아는 사람도 없다”며 미군보다 먼저 평양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밀번 장군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기 하달되었던 작전 명령을 변경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미 24사단이 빠지고, 국군 1사단이 평양 공격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미 1기병사단과 국군 1사단은 서로 평양 입성을 목표로 선의의 경쟁이 붙었다.
1950년 10월 19일 1사단 평양 입성	30세	기필코 평양을 먼저 점령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안고 출발했으나, 평양으로 전진하는 초기에 국군 1사단은 미 1기병사단과 비교할때 수송장비와 기동력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때까지 1사단은 전차(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 당시 미군은 한국군이 전차 훈련 경험이 없어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 군부대에 전차 지원을 극도로 꺼려 미군 보병 없이 전차만 국군에 내준 적이 없었다. 백선엽 사단장은 (전차 보병 훈련을 해본 적은 없었으나) 밀번 군단장에게 전차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금 곤장 익혀서 바로 실천하겠다”

는 굳은 결의를 보였고 밀번 소장은 백 사단장을 믿고 전차 20대를 다음 날 아침에 보내주었다. 백 사단장은 직접 전차와 보병 움직임을 오전 내내 기초 훈련시키고 그날 오후에는 직접 선두 1번전차에 올라타 공격, 복진하였다. 국군 1사단 장병들의 놀라운 단결, 투혼과 배속 부대였던 미 10고사포단장(헤닉 대령)과 미 6전차 대대장(그로든 중령)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미 17병사단과의 치열한 평양 공격 선두 경쟁에서 결국 국군 1사단은 10월 19일, 미 17병사단보다 30분 먼저 평양의 대동강 다리를 점령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백선엽 준장은 해방 후 자유 민주주의를 찾아 평양을 떠난 지 5년 만에 국군을 이끌고 꿈에 그리던 고향 평양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1950년 10월 31일 30세
운산 방어전투

평양을 점령한 후, 거침없이 압록강을 향해 복진하여 운산까지 전진하고 있을 때 백선엽 준장은 생포한 중공군 포로를 직접 심문하여 중공군 수십만 명이 이미 10월 초에 압록강을 넘어와 미 1군단 작전 지역 깊숙이 매복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백선엽 1사단장은 즉시 밀번 미 1군단장에게 보고하여 군단 전체 병력의 철수를 건의했다. 밀번 장군은 고심 끝에 미 8군에 보고한 후 전 부대의 철수를 명령했다. 10월 31일 밤, 중공군의 본격적인 기습포위가 시작되어 운산 전방에 나아갔던 국군 1사단의 예하 부대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백선엽 장군은 헤닉 대령에게 미 10고사포단의 화력을 집중 포격하여 밤새도록 1만 3천 발의 포탄을 중공군 진지에 퍼부어서 각 예하 부대는 무사히 철수하였고 그 후 사단을 재정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미 8군의 주력인 미 1군단이 중공군의 대규모 포위에서 벗어나 무사히 철수하게 됨으로써 차후 서부전선에서 작전대비를 할 수 있었다.

1951년 4월 15일 31세

소장 진급, 제1군단장(20,000 ~ 80,000명)

1951년 5월 21일 31세
1군단장, 대관령전투

5월 16일에 시작된 중공군의 6차 대공세로 국군 3군단이 보급로 요충지인 흥천, 오미치(현재 오미재)고개를 쉽게 중공군에게 내주자 밴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은 국군 3군단의 전투지휘에 크게 실망하고, 대관령 우측에서 동해안을 담당하고 있던 백선엽 장군의 국군 1군단과 미 3사단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방어작전에 임하라는 구두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곳은 전쟁에서 군인이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가치가 높은 곳이다. 대관령 지역을 중공군에게 뺏기면 동부와 서부전선의 균형이 무너지고 강릉까지 위협해진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백선엽 1군단장은 예하 사단에 지체 없이 대

군생활

(15년간)

관령을 신속히 방어하라는 출동 명령을 내려 예하 부대가 가까스로 중공군보다 한 시간 먼저 오마치고개를 점령하게 되면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한 아군은 파도같이 밀려 오는 중공군의 대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협상 회담 최초 한국 대표 (1군단장 겸직)	31세	백선엽 소장은 전쟁 진행 중에 열린 휴전 협상에 최초의 유엔군 측 한국대표로 나가게 되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며 모두 휴전을 반대하였다. 백선엽 소장이 선정된 많은 이유 중의 첫째는 공산측이 깎을 수 없는 한국군의 장군이었고, 둘째는 중국어가 유창하여 적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백 소장에게 협상에 참여는 하되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협상 중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백 장군은 협상에 참가한 3개월 동안 매일 친필로 협상을 기록하였다. 휴전회담으로 인해 백선엽 장군이 1군단장 자리를 비운 사이 동부 전선의 전황이 불리해지자 밴 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은 백 장군을 다시 전선으로 복귀시킨다.
1951년 11월 16일	31세	소장 백야사사령관, 지리산 공비토벌
1952년 1월 12일	32세	중장 백(白) 야전전투 사령부 사령관에 임명
1952년 2월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성공	32세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전쟁 중 미리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은 지리산 일대에 게릴라로 약 25,000명이 숨어 있어 후방 작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공비(게릴라)들이 경부선, 전라선 철도와 주요 도로를 수시로 공격해 통행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고, 유엔군의 보급선마저 위협을 받게 되어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불가피해졌다. 그리하여 1950년 10월부터 시작된 토벌작전이 14개월 동안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이에 미 8군 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백선엽 장군에게 “Task Force Paik(백 야전전투 사령부)”을 편성하여 지역 계엄사령관으로 군·관·민·경찰까지 동원하여 적 게릴라를 소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약 3개월간 집중적인 공비토벌작전(Operation Rat Killer)을 전개하였다. 작전 중 백선엽 장군은 다 같은 동포임을 고려하여 무자비한 살상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 12월 2일 오전 6시 소탕하는 날, 부산과 대구를 빼고 대전 이남에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동경에서 만들어 온 1,000만 장의 전단(귀향증: 고향으로 돌아감)을 비행기로

뿌렸다. 백선엽 장군의 이름으로 뿌려진 전단의 내용은 ‘이 전단(뺨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이었다. 백선엽 중장은 아군과 적군 남한이나 북한사람 모두 소중한 목숨, 한 나라 한 민족임을 잊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귀순자와 빨치산 주변 사람들을 위한 수용소까지 미리 마련하여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또 백선엽 장군은 3개월간 지리산 토벌작전을 수행한 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빚어낸 아픔인 200여 명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 전라도 광주에 “백선고아원”을 설립하였다. 현재는 “백선 바오로의 집”으로 개명하여 천주교 운영 시설이 되었다.

1953년 5월까지 만 31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리산(빨치산) 공비토벌전이 이루어졌으나, 그중 백선엽 장군이 토벌작전에 개입된 것은 단 3개월뿐이었다.

1952년 4월 5일 근대적인 국군 제2군단 재창설 (20,000 ~ 80,000명)	32세	밴플리트 장군은 평소에 주장하던 ‘자국 군대에 의해 전투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전쟁지휘 방식대로 한국군을 제대로 싸우는 군대로 육성시키는 것을 원해, 이 방법으로 한국군에 군단 규모에 걸맞는 야전군단을 창설하는 임무를 백선엽 중장에게 맡기었다. 그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백 아전전투 사령부(Task Force Paik) 모체를 그대로 유지하여 새로운 한국군 2군단으로 재창설하는 것이었다. 백선엽 중장은 “백 아전사”를 모체로 국군 2군단을 재창설토록 하여, 1952년에 새로운 전투사령부다운 기능을 갖춘 최초의 근대적인 제2군단이 창설되었다. 제2군단은 미군의 군단과 같이 포병, 공병, 통신 등 독자적인 전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되었다. 국군 최초로 군단부대관리규정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만들어 매뉴얼에 의한 부대운용체계를 구축하였다. 백선엽 장군이 창설한 2군단을 모델로 국군에서는 휴전 후 백선엽 육군참모총장 재임기간 중 3, 5, 6군단이 속속 창설되었다. 훗날 미군이 담당하던 155마일 휴전선을 순차적으로 인수받아 서부전선의 미 1군단과 함께 전선 전체를 지키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52년 7월 23일	32세	중장, 제7대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임명
1952년 12월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군 전력증강 브리핑 / 사단창설 추진	32세	백선엽 중장은 수많은 고지에서 중공군과 참호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 스스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게 하고자 박차를 가하였다. 10개 사단의 국군을 20개 사단으로 대폭 확장시키는 계획을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미

군생활

(15년간)

대통령 당선자, 아이젠하워에게 직접 브리핑하여 설득시킴으로써 미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 약 30만 명이던 국군을 휴전 후 최대 약 60만 명까지 증강시키는 10개 사단 창설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6·25전쟁 중 10개 사단이던 국군은 휴전 당시 16개 사단이 되었고, 1954년 2월 백선엽 장군이 육군참모총장을 떠날 때는 20개 사단 60만 대군으로 성장했다. 또한 제주도와 논산에 대규모 훈련장을 설치하여 제대로 훈련된 병사들을 양성하였고, 장교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 최신의 군사교육을 습득하게 하여 귀국 후에는 교관으로 병사들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국군 스스로 양성하는 훈련체제를 구축하였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약 10년간 미국 Ft. Benning에 유학한 한국군 장교는 1,450명이었다.

1953년 1월 31일 제33세
국군 초대 대장으로
임명(33세, 한국군
최초의 육군 대장)

미 8군 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한국군의 병력이 이제 60만 대군을 넘어 한국군에도 대장급 장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께 건의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백선엽 중장을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 대장으로 승진시킨다.
진급식은 부산 경무대에서 있었으며, 별 4개가 달린 계급장 두 개를,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하나는 밴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이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의 양 어깨에 달아 주었다.

1953년 5월

33세

육군대학 총장 겸직

1953년 5월 13일

33세

육군참모총장, 아이젠하워 미대통령과 백악관 단독 면담. 한미동맹 상호방위 조약 체결과 경제지원 방안
휴전 협정 중 1953년 5월 초, 미 육군참모총장의 초청으로 백선엽 대장은 미국의 각종 군사시설과 교육기관을 둘러보고, 최고 지휘관 교육을 받으러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6·25전쟁을 함께 치른 옛 친구이자 전우인 버크 미해군 제독과 만나 휴전 이후 한국의 장래에 대해 토의를 하던 중, 미국에는 상호 방위조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아침, 백선엽 장군은 미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가 불문곡직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요청에 미 육군참모총장은 “미국 대통령은 그럴 시간이 없다”며 거절한다.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작년에도 미 대통령께 중대한

브리핑을 했던 구면이고, 하루에도 수많은 미군 전사자가 발생하는 전쟁터의 참모총장이기에 대통령을 직접 만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끈질긴 태도로 총장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전쟁터에서부터 친면이 있는 미 참모총장은 결국 백악관에 연락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성사시켰다.

다음 날 아침 1953년 5월 13일, 백악관에서 백선엽 대장은 통역사 없이 단독 면담 중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주저없이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휴전을 반대하는 한국인들의 심정을 밝히고 또한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미 대통령은 이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 단계를 알려주었다.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정부의 어떤 사전 지침도 없었다. 백선엽 장군의 미 대통령 단독면담에서 나온 그 논의는 5개월 후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후 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1953년 7월 대장, 육군참모총장	33세	전선 재정비 및 대규모 전후복구사업 전개 백선엽 장군은 테일러 미 8군 사령관의 협조하에 한국군과 미 8군 장병이 동원된 전국적인 전후복구사업(AFAC: 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을 펼치게 하였다. 파괴된 병원, 학교, 교량, 교회 등 수많은 공공시설을 재건하였는데, 그때 재건된 학교가 약 900곳이며 병원과 고아원이 각각 200여 곳, 성당과 교회는 약 300 곳에 달하였다.
1953년 7월 27일	33세	한국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으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1953년 7월 참모총장, 전후 복구사업	33세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은 새로 부임한 미 8군 사령관의 협조하에 한국군과 미 8군 장병들을 동원한 전국적인 전후복구사업을 펼쳤다. 파괴된 병원, 학교, 교량, 교회 등 수많은 공공시설을 재건하였는데, 그때 재건된 학교가 약 900곳이며 병원과 고아원이 각각 200여 곳, 성당과 교회는 약 300곳에 달하였다.
1953년 10월 1일	33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군생활 (15년간)		
1954년 2월 14일	34세	대장, 제1야전군 창설야전군(약 80,000 ~ 200,000명), 초대 사령관 및 육성 아시아 최초 제1야전군 창설 및 육성(야전군: 80,000 ~ 200,000명) 테일러 미8군사령관은 휴전 후 155마일 휴전선 대부분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된 상황에서 육군사단 전체를 지휘하는 별도의 야전군 창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백선엽 장군을 초대 야전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리하여 백 대장은 원주의 1야전군 휘하에 4개 군단, 16개 사단을 거느린 거대 야전군을 창설하였고, 초대 1군사령관으로 40개월간 지휘하면서 창설된 1군을 실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휴전선을 지키는 정예 한국군으로 양성하였다.
1957년	37세	국군 묘지 준공 백선엽 대장은 전쟁 희생 장병들을 위해 국군 묘지 조성을 계획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년에 걸쳐 동작동 일대의 묘지를 조성하여 1957년에 동작동 국군 묘지를 준공시켰다. 그 후 2006년에 “국립 서울 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57년 5월 18일	37세	제10대 육군참모총장에 재임명
1958년 3월	38세	육군참모총장, 미 국방부 방문, 한국 육·해·공군의 현대화 지원 협상 성공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70만 명이 넘는 국군의 군 장비 현대화를 위한 협상 타결을 위해 참모들을 대동하고 직접 미국을 방문하였다. 미 펜타곤에서 미 측 관계자들에게 한국군 현대화 계획안을 자세히 브리핑하고 다시 재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만나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
1959년 2월 23일	39세	연합참모본부 의장에 임명 미 ROTC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 육군에 ROTC 제도를 도입 백선엽 장군은 육군 장교 양성을 위해 한국 육군에 미 ROTC제도를 도입하여 연구, 검토를 거쳐 재임기간 중 제도 도입 방침을 확정시켰다. 제도 도입 이후 백 장군이 군을 떠난 2년 뒤인 1962년 6월에 육군 ROTC 제1기생이 배출되었다.
1960년 4월 19일	40세	4·19혁명 일어난
1960년 5월 31일	40세	전역, 육군대장으로 군생활 15년을 마감한다.

외교관 생활 (10년간)

백선엽 장군은 전역한 이후 국가의 명령에 따라 크게 두 분야에서 공직자로 일하였다. 하나는 외교관으로서 약 10년간에 걸쳐 대만, 프랑스 등 17개국을 겸임,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 교통부장관과 화학공업 총괄 사장으로서 약 10년간 국가 산업발전에 열정적으로 봉사하였다.

1960년 7월 15일	40세	주 중화민국(지금의 대만) 주재 대사(1년) 대만에 중화민국 주재 대사로 임명을 받은 백선엽 대사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을 파악하고 한국 교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학교를 설립했다.
1961년 5월 16일	41세	5·16 군사 혁명 일어남
1961년 7월 4일	41세	프랑스 주재 대사(4년 3개월) 6·25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이 전후 복구와 나라의 재건에 힘을 쏟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계 외교를 펼치기 열악한 환경에서 대사 임무 수행은 어려웠다. 특히 1961년 5월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새정부의 정당성을 세계 각국에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수교 관계를 맺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짐으로 여유 있는 대사 근무가 아니라, 새롭게 외교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외교전쟁의 일선에서 근무하였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196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79달러였다. 그만큼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력은 빈약했다. 그런 이유로 1961년 7월,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은 대만 대사에서 프랑스 대사로 부임하여 4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프랑스 이외에 서유럽의 5개국(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과 아프리카 13개국(세네갈, 모리타니, 아이보리코스트(현 코트디부아르), 토고, 다호메이(현 베냉), 니제르, 차드, 가봉,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자빌 콩고, 킌사사 콩고, 마다가스카르, 오트볼타(현 부르키나파소)) 등 총 18개국 대사를 겸임하는 특이한 외교관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 세계 UN참전국을 포함한 유럽, 아프리카의 정상 및 주요 인사들은 외교관 백선엽 대사보다 한국전쟁을 이끌었던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대장으로 익히 알고 있었고, 백선엽 장군도 그 점을 늘 인식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외교력 확장을 위해 힘없이 일하였다. 백선엽 대사는 1964년 네덜란드에서 애국지사 이준 열사의 유골을 한국으로 환국하였고 북한의 프랑스 진출 공세를 막아내는 임무를 철저히 했다. 백선엽 대사는 언제나 본인만이 외교관이 아니라 “한국인은 한국을 떠나는 순간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된다”라고 말했다.

외교관 생활 (10년간)

1965년 7월 12일	주재 대사 45세	초대 주 캐나다 대사(4년 3개월) 초대 주 캐나다 대사로 부임한 캐나다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개척하였고, 한국전쟁 참전국인 캐나다와 적극 우호관계를 맺음으로 수교국으로서 든든한 기초를 세웠다. 그 당시 캐나다와 미국을 왕복하는 교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돕고자 대사가 직접 나서서 까다로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또 독일에서 일하던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은 캐나다로 이민오고 싶어 했지만, 이러한 요구는 그 당시 한국 정부 정책에 위배되어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여권을 연장할 수가 없었다. 영사들의 권한으로는 여권 연장이 불가능해지자, 교민들의 고통을 아신 백선엽 대사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테니, 원하는 모든 교민들에게 여권 연장을 해주라”고 지시하며 우리 교민들의 애환을 보살펴 주셨다.
--------------	--------------	---

공직생활 (10년간)

1969년 10월 21일	49세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1년 3개월) 10년이라는 외교관 생활을 마친 백선엽 대사는 교통부 장관으로 부임되어 1969년에 귀국한다. 10년 전 백선엽 장군이 한국을 떠날 때와는 달리, 산업화 초기 대한민국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온 인구가 1,0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인구로 서울 교통은 혼잡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유일한 교통 수단은 매일을 뿔어내는 ‘드럼통 버스(미군이 버리고 간 드럼통을 두들겨 만들어진 버스)’와 기차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 도시의 지하철 도입이 시급했다. 그러나 당시의 나라 형편으로는 천문학적 예산을 조달할 수 없었다. 차선책으로 철도 출발역을 분산시켰다. 철도 승객의 서울역 집중을 분산시키되 경부선만은 서울역 발착을 그대로 두고, 호남선과 장항선은 용산역, 중앙선과 경춘선은 청량리역으로 옮겼다. 이런 대책만으로는 혼잡한 교통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백선엽 장관은 한국에 지하철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지하철 건설에 집중하였다. 사방으로 기술지원과 차관을 얻기 위해 미국, 유럽 및 일본을 수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액수의 차관을 얻는다는 것은 그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프랑스 대사로 있었던 백 장관은 파리의 메트로를 선호했으나, 일본 지하철이 기술면이나 비용면, 모든 여건상 한국을 위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무렵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던 중 뜻밖의 요도호 사건이 일어났다.
---------------	-----	---

공직생활 (10년간)

1970년 3월 31일	50세	JAL(Japan Airline) 납치 / 요도호 사건 백선엽 교통부장관이 김포공항을 담당하고 있을 때 요도호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에서 적군파 요원 9명이 일본 국내 항공기를 납치하여 평양으로 가기를 강요했다. 비행기가 납치되어 평양으로 가는 중, 일본항공 비행사는 김포공항에 납치 상황을 설명하며 김포공항에 착륙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 김포공항은 모양새를 평양공항으로 변경시켜 납치범들이 오인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인은 인민군 병사의 복장을 하고 “평양 도착 환영”의 현수막을 매달았다. 납치당한 일본항공이 김포공항까지는 무사히 착륙하였으나 적군파는 평양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는지, 김일성의 거대한 초상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을 리 없는 김포공항은 결국 평양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오랜 협상 끝에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이 승객 대신 인질이 되어 북한으로 향했다. 운수성 정무차관은 백선엽 교통부장관에게 만약 본인이 못 돌아올 경우 본인 가족에게 전달해 달라며 커프스 단추를 맡기고 갔다. 그 후 이 사건은 희생자 없이 마무리되었다. 무사히 돌아와 커프스 단추를 돌려받은 정무차관은 백선엽 장관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무엇이든 바라는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서울 지하철을 만드는 방법에 고민하던 백선엽 장관은 일본에 지하철 기술지원과 건설자금을 부탁했다. 일본 정무차관은 약속을 지켜 주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설계, 1971년 4월에 기공식을 하였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1971년 6월	51세	충주·호남비료 주식회사 사장(2년) 백선엽 장관은 1971년에는 충주비료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비료 생산, 공급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중화학공업에 국운을 걸고 생산 확대로 농업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다. 그 후 모든 비료회사를 통합하여 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비료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1970년대는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에 국운을 걸었던 시대다. 1973년 정부는 전국 각지의 화학공업 관련 회사들을 통합하여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를 만들고 백선엽 장군이 초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1973년 4월	53세	한국종합화학 사장(7년) 1973년부터 1980년까지는 국영기업인 한국종합화학 사장으로 임명되어 재임 기간 중 기술지원과 공장건설을 위한 모든 차관을 얻어 총 14

공직생활

(10년간)

개의 화학공장을 건설하는 등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국가 경제 발전 전략에 힘썼다. 한국종합화학은 펄프와 소금도 화학공업에 속한다고 해서 그 공장들도 지었다. 남해화학 건설과 당시 동양에서 제일 큰 비료공장 '한국종합화학공장'을 미국 Agrico와 파트너하여 건설하였다.

군 원로 공직 봉사 (33년간)

1986년 7월	66세	국토 통일원 고문(4년)
1989년 7월	69세	용산 전쟁기념관 건립, 국민모금후원회 회장(2년 5개월)
1989년 12월	69세	성우회 회장(1980년 해산 성우회 재결성)(2년) 성우회는 한국의 장성급 예비역들의 모임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전면에 나서서 진실한 안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군을 돕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다. 해체되었던 육, 해, 공군 성우회를 예비역 장성들의 간청으로, 1980년에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백선엽 사장은 성우회 회장 자리를 맡아 성우회를 재건한다. 또한 백선엽 장군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많은 안보단체를 창립하여 한미동맹을 공고히하는 활동에 봉사하였다. 1993년에는 한미안보연구회를 출범시켜 초대 회장으로서 정례적으로 한국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98년 9월	78세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준비 2년, 실행 3년)
2003년 11월 ~2020년 초	83세~100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 (17년) 17년간 맡았던 이 직책은 명예직으로, 한국전쟁을 기록으로 남기는 전사편찬 연구 부서의 자문역할을 맡아 수많은 한국전쟁 관련 연구집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증언하는 직책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9년간에 걸쳐 '6·25전쟁사(전 11권)'를 발간하였으며, 이 전 과정에 백선엽 장군의 증언과 자문이 반영되었다.
2007년 2월	87세	대한민국 육군협회 초대 회장(최초의 육군지원 사단법인 단체)(7년)
2009년 4월	89세	국민원로회의 외교안보분야 자문위원(4년)
2010년 6월	90세	한국전쟁기념 재단 초대 이사장(2년) 한국전쟁 60주년에는 한국전쟁기념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되어 UN참전국가 후손들의 장학사업도 전개했다.

군 원로 공직 봉사 (33년간)

2013년 8월	93세	‘명예 미 8군 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사유는 “백선엽 장군은 한국전쟁 중 탁월한 전공을 달성하고, 정전협정 이후 한미 장병의 지도자로,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역할을 완수하였다.”라고 한다. 미군이 자국군대의 명예 사령관을 타국군인에게 부여한 것은 전례에 없었던 일이다. 백선엽 장군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망각되지 않도록 일깨우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실제 미국과 민감한 안보 이슈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두되었을 때에는 예비역 장성대표로서 직접 미국 본토에까지 가서 미측 주요 인사들과 만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까지도 적극 수행하였다.
2015년 10월	95세	국방대 ‘명예 군사학박사 1호’ 학위 수여
2020년 7월 10일	100세	100세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암으로 별세 노병 백선엽(본인의 자칭)은 1920년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1946년 육군이 창설된 26살에(군번 54)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신념만으로 군인이 되어, 6·25전쟁을 치르고, 초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을 거쳐 전역을 하는 것은 14년 후 1960년이다. 40대에는 10년간 외교관 생활 속에서 21개국 대사로 적극적인 수료 관계를 맺었다. 50대에는 공직자로서 지하철을 세우고, 기술지원과 공장건설을 위한 모든 차관을 얻어 총 14개의 화학공장을 건설하는 등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중심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에 힘썼다. 국가의 공직자로서 세계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공로를 세웠고, 공직을 마치고 완전한 일반 민간인으로서 사회에 나오게 된 것은 1980년 60세 때였다. 그 후로 100세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약 40년 동안 백선엽 장군은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은 “휴전”이라는 현실 안에서 국가 수호와 번영을 위해 일관된 자세로 한미우호증진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Biography and Feats of General Paik Sun-yup

Birth and Education

November 23, 1920	Paik Sun-yup was born in Deokheung-ri, Gangseo-myeon, Gangseo-gun, Pyongyangnam-do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 colonial rule.
December, 1941	As he was born into poverty and lost his father at a young Age, Paik Sun-yup could not afford to go to school. Due to his financial circumstances, he graduated from Pyongyang Normal School and later the Bongcheon Military Academy where he studied without paying tuition. In 1942, he was commissioned as a second lieutenant, and in February 1943, he received orders to join the Gando Special Force —a force founded in 1938, tasked with fighting against the Soviet Communist Army's guerrillas in the Gando region— which was carrying out anti-communist operations against the 8th Route Army.
August 15, 1945	On the da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 rule, Paik Sun-yup, having repudiated the communist regime imposed by Kim Il Sung, started to migrate southward.

Military Life (15 years)

January 15, 1946	Age: 26	Paik Sun-yup, who had arrived in South Korea, was among the first to be commissioned into the military and was assigned service number 54. (The South Korean National Constabulary was formed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February 1946	Age: 26	After being commissioned as a lieutenant and founding member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Constabulary, Lieutenant Paik Sun-yup was appointed as the commander of the 5th Company ¹⁾ .
September 1946	Age: 26	As a battalion commander with the rank of major, he established the Pusan 5th battalion ²⁾ .
January 1, 1947	Age: 27	As a regiment commander, Lieutenant Colonel Paik Sun-yup established the 5th Regiment ³⁾ based in Pusan.
April 11, 1948	Age: 28	He held two positions simultaneously: the Director of the Intelligence Bureau for the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and the Director of the Intelligence Office for the South Korean National Constabulary.
August 15, 1948	Age: 28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uth Korean National Constabulary was renamed the Republic of Korea Army.
December 25, 1948	Age: 28	Paik Sun-yup achieved the rank of Colonel.
January 1949	Age: 29	While serving as the Director of the Intelligence Bureau, he led an anti-communist campaign to purge communist elements from the military.

1) A company consist of approximately 60-255 soldiers.

2) A battalion consists of approximately 300 to 1,000 soldiers.

3) A regiment consisted of approximately 1,000 to 3,000 soldiers.

Military Life

(15 years)

As a result of left-leaning factions infiltrating the military after the Jeju and Yeosu Rebellions, a large-scale campaign was carried out to purge soldiers who were involved in leftist activities.

At that time, then Colonel Paik Sun-yup, who was serving as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Bureau for the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now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overseeing the purge and ensured that soldiers involved in leftist activities were accurately identified and that innocent soldiers were not unjustly punished. He proposed that then Army Chief of Staff Lee Eung-joon directly meet with imprisoned soldiers to prevent any future issues while also personally interviewing them to avoid any erroneous decisions. During this process, he dramatically rescued Major Park Chung-hee (who later becam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reat success of the purge campaign was proven by the fact that there were no further cases of a military unit collectively defecting.

July 30, 1949	Age: 29	Colonel Paik was appointed commander of the 5th Infantry Division ⁴⁾ in Gwangju
April 22, 1950	Age: 30	Colonel Paik was appointed commander of the Munsan 1st Infantry Division while being a student at the Seoul Army Infantry Staff School.
June 25, 1950	Age: 30	North Korea's communist invasion led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n June 25. At that time, Colonel Paik Sun-yup was undergoing training at the Seoul Army Staff School.
June 25, 1950	Age: 30	At 4:30 am,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Party's Kim Il-sung, launched a surprise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untry was in disarray, and its military was poorly equipped and almost defenseless at the time. Colonel Paik Sun-yup, in charge of the 1st Infantry Division, held the line against the enemy for three days at the Imjin River, around Munsan and Paju with the objective of defending the region and delaying the capture of Seoul amid the chaos. At the time, the South Korean military did not possess an answer to North Korean armored units, thus they voluntarily formed groups to destroy the opposing tanks with explosive vests, sacrificing their lives in a heroic effort to delay and hold back the North Korean offensive as much as possible. It was in these desperate times that Colonel Paik Sun-yup received reports that Seoul had fallen and that the only bridge over the Han River was destroyed, as a result, he suspended counterattack plans, disbanded the 1st Infantry Division, and promised to reorganize the scattered troops of the division at the Shiheung Infantry School.

⁴⁾ A division consists of approximately 3,000 to 15,000 soldiers.

Military Life

(15 years)

Colonel Paik Sun-yup arrived at the Haengju ferry crossing, around the evening of June 28th. It was at this point that the Colonel realized that he had not eaten for nearly four days as he had only been drinking water. In addition to having had no time to change his uniform or boots, which had resulted in the heels of his boots becoming worn through, causing hobnails to protrude and pierce his soles, which were by this time soaked in blood.

The staff officers, who had arrived at the ferry before the division commander, happened upon a chicken, which they promptly boiled and offered to him for dinner. However, he could not bring himself to eat it, stating, "My soldiers have nothing to eat."

July 25, 1950	Age: 30	After crossing the Han River, Colonel Paik miraculously replenished and reconstituted the 1st Infantry Division, while fighting a delaying action back to the Nakdong River line.
July 25, 1950	Age: 30	Due to his successes, Colonel Paik Sun-yup was promoted to Brigadier General, allowing him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defense of the Nakdong River Line.
August 1950	Age: 30	Victory at the Battle of Dabu-dong, the final defense line of the Nakdong River: During the national crisis that threatened the country's existence, Brigadier General Paik designated the mountainous area of Dabu-dong, Gyeongsangbuk-do, located along the Nakdong River, as the final line of defense. He judged that the area had favorable terrain with a lengthy ridgeline stretching from east to west that had once defended against foreign invaders during the Imjin War. General Paik declared, "This mountain range will be our last battleground. This line is our division's final defensive line. If we cannot defend this line, it will be the end of our country." The 1st Infantry Division, which at the time consisted of only 7,000 troops, faced an enemy three times as numerous, and firepower an order of magnitude greater than they could field. Despite the odds, they had the courage, determination, and commitment to protect their nation in the midst of a national crisis. This battle was the fiercest of the Korean War, in which three North Korean divisions focused their assaults on the ROK's 1st Division. Desperate, Brigadier General Paik requested assistance from General Walton Walker, ultimately resulting in the first-ever Korea-U.S. joint operation with Colonel John Michaelis leading the respective American forces.

Paik's leadership and bravery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victory at the Battle of Dabu-dong. His willingness to lead from the front and put himself in harm's way motivated his men to fight fiercely and hold the line against overwhelming odds. The joint operation with the U.S. forces was also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e war, as it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ace of a common threat. The people of Chilgok, Gyeongsangbuk-do, who endured great hardship and sacrifice during the battle, also deserve recognition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defense of their country. The victory at Dabu-dong, along with subsequent counteroffensive operations, led to the eventual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a shift in the tide of the war in favor of the ROK and its allies.

September 15, 1950	Age: 30	General MacArthur succeeded in landing at Incheon
October 1950	Age: 30	General MacArthur orders a swift advance towards Pyongyang. The 1st Division of the ROK Army, which had achieved victory at Dabu-dong, was slated to advance northward; however, they received orders to move to the rear with the U.S. 24th Division and U.S. 1st Cavalry Division taking the offensive in their place. BG Paik learned of this and went to meet with General Frank Milburn, persuading him that "it is unacceptable that the ROK Army can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assault on the North Korean capital, Pyongyang. We must participate in order to restore the honor of our brothers in arms who have only experienced bitter retreat since the Battle of the Imjin River, in addition to those who have died in defense of our country." BG Paik also emphasized that "although we don't have many vehicles, we have the determination to march day and night. Korea's rugged mountains and poor roads actually favor the mostly foot-bound infantry of the RoK, which will arrive in Pyongyang before the mostly motorized US forces. Besides, no one knows the geography of Pyongyang as well as I do, as it is my hometown," saying this, he convinced General Milburn. As a result, the original operation order was rapidly changed, with the U.S. 24th Division being held-back and the 1st Division of the ROK Army taking charge of the attack on Pyongyang. The U.S. 1st Cavalry Division and the ROK 1st Division thus engaged in a friendly competition to be the first to enter Pyongyang.
October 19, 1950	Age: 30	Brigadier General Paik along with his division set off with pride, confident that they could be the first to occupy Pyongyang, but at the outset of the advance to the city, the 1st Division of the ROK Army lacked the transportation and mobility which was inherent to the U.S. 1st Cavalry Division.

Military Life

(15 years)

In spite of this, BG Paik Sun-yup's leadership and determination, along wit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U.S. forces, were instrumental in the ROK Army's successful advance to Pyongyang. Moreover, The ROK 1st Division's unity and fighting spirit were also critical to their victory.

For Paik, the victory held a personal significance as he returned to his long-missed hometown of Pyongyang, where he had not been for five years, since leaving in search of freedom after liberation. His success in leading the ROK Army to victory in the race to occupy Pyongyang was a moment of great pride and honor for him and his fellow soldiers.

October 31, 1950

Age: 30

After occupying Pyongyang, BG Paik's 1st Division advanced towards the Yalu River mostly without issue. However, during their advance towards Unsan, BG Paik personally interrogated a captured Chinese soldier and confirmed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Chinese troops had crossed the Yalu River in early October and had entrenched themselves in the area where the U.S. 1st Corps planned to operate. He immediately reported this to General Milburn of the U.S. 1st Corp and suggested a complete withdrawal of all forces. After much contemplation, General Milburn reported to the U.S. Eighth Army and ordered the withdrawal of all forces. On the night of October 31, a full-scale surprise attack and encirclement by the Chinese army began. As a subordinate unit of the ROK 1st Division was about to be overrun, BG Paik instructed Colonel Henning to bombard the area with the U.S. 10th Anti-Aircraft Artillery Group and rain 13,000 shells on the Chinese Communist Army positions through the night. This allowed each subordinate unit to withdraw safely and enabled the division to reorganize. As a result, the U.S. 1st Corps, the main force of the U.S. Eighth Army, was able to withdraw safely from the large-scale Chinese siege and prepare for future operations on the Western front.

April 15, 1951

Age: 31

Paik was Promoted to Major General and become the Commander of the 1st Army Corps.⁵⁾

May 21, 1951

Age: 31

The Chinese launched their sixth large-scale offensive on May 16, resulting in the loss of the key supply hubs of Hongcheon and Omae-jae to the Chinese Communist Army.

General James Van Fleet, commander of the U.S. Eighth Army, was greatly disappointed with the combat leadership of the South Korean 3rd Corps and immediately gave verbal orders to MG Paik Sun-yup's 1st Corps and the U.S. 3rd Division,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East Coast from the right slope of Daegwonnyeong, to take immediate defensive action. The Daegwallyeong area was a decisive location that determined the tide of the war. If the Chinese were to capture the area around Daegwallyeong, the balance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fronts would have become disrupted, and the situation would have become perilous.

5) An Army Corps consist of 20,000-80,000 soldiers.

Military Life

(15 years)

MG Paik, who was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immediately issued orders to his subordinates to defend the Daegwallyeong mountain pass without delay. As a result of this swift action, his units managed to occupy Omachi Hill an hour ahead of the Chinese Communist Army, allowing them to secure advantageous terrain and successfully repel the enemy's major offensive wave that was advancing relentlessly towards them.

July 10, 1951,

Age: 31

During the war, Major General Paik Sun-yup became the first representative of South Korea within the UN force's delegation at the armistice negotiations. At that time, President Rhee Syngman and many Koreans opposed the ceasefire, hoping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G Paik was chosen as the representative because he was a highly respected ROK general who could neither be intimidated nor underestimated by the communists.

President Rhee instructed MG Paik to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but to not add to the talks —as a sign of opposition to the ceasefire. He meticulously recorded the negotiations over the three months he participated.

However, as a result of his absence from the front, the situation on the Eastern front became unfavorable. General Van Fleet, the commander of the U.S. Eighth Army ordered MG Paik to return to the front line to help with the ongoing battle.

November 16, 1951

Age: 31

In September 1951, around 25,000 North Korean soldiers took refuge in the Jirisan mountain range and were unable to retreat, resulting in significant obstacles for rear operations. The guerrillas constantly attacked the Gyeongbu and Jeolla railway lines and major roads, making rapid travel impossible. They threatened the supply lines of the UN forces, making it necessary to carry out a large-scale suppression operation. The initial 14-month operation, which began in October 1950, did not yield significant results. Thus, Major General Paik was appointed as the commander of Task Force Paik, which was tasked with mobilizing military assets, government officials, civilians, and police to suppress the Communist guerrillas in the Jirisan mountains.

December 1951

Age: 31

MG Paik commenced Operation Rat Killer:

During the operation, MG Paik made every effort to prevent merciless killings, considering that all involved were in fact Koreans and thus, compatriots.

Military Life

(15 years)

At 6:00 a.m. on December 2, 1952, the first day of the mop-up operation, martial law was declared in all areas south of Daejeon, excluding Pusan and Taegu. To reduce casualties, one million flyers, also known as "return home passes," were air-dropped. The flyers, distributed in the name of MG Paik Sun-yup, promised safety and life to anyone carrying them.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hose who surrendered, he prepared the relevant facilities in advance. MG Paik's involvement in this campaign would only last about 3 months.

After leading the suppression campaign in Jirisan, General Paik established Paiksun Orphanage in Gwangju, Jeolla Province, for war orphans, who were the inevitable victims to the agony of the war. It has since been renamed Paiksun Paul's House.

April 5, 1952

Age: 31

General Van Fleet wanted to develop the Korean military into a capable fighting force that could fight independently, according to his command style. To achieve this, he tasked Major General Paik Sun-yup with creating a field army corps within the Korean army. This involved re-establishing the 2nd Army Corps of South Korea by expanding the already successful Task Force Paik and using it as the basis for the new Corps. In 1952, under the leadership of Major General Paik Sun-yup, the 2nd Army Corps was established with Task Force Paik at its core and thus became the first modern corps equipped with elements which were organic to U.S. Army Corps: combat command, artillery, engineering, and communications battalions.

General Paik established a manual-based force management system by implementing a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in a first for the Korean military. Using the 2nd Army Corps as a model, the Korean military successively established and raised the 3rd, 5th, and 6th Army Corps during Paik's term as Chief of Staff of the Army after the armistice. These corps would later take over the manning of the 155-mile armistice line, previously under the control of the US military.

July 23, 1952

Age: 32

Lieutenant General Paik was appointed as the 7th Chief of Staff of the Army and as the Martial Law Commander.

December 1952

Age: 33

While fighting in numerous fierce battles against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armies, Lieutenant General Paik worked tirelessly to equip the Republic of Korea Army with the capability to conduct warfare independently.

Military Life

(15 years)

During then U.S. President-elect Eisenhower's visit to Korea, Army Chief of Staff Paik presented the president-elect with his plan to increase the fighting force of the military from 10 to 20 divisions and successfully persuaded him to provide the equipment necessary. This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and raising of an additional 10 divisions, allowing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grow from about 300,000 personnel to approximately 600,000 after the armistice. By the time Paik left his position as Chief of Staff of the Army, in February 1954, the South Korean military had been expanded from 10 to 16 divisions during the Korean War and would eventually grow to 20 divisions totaling 600,000 men at arms.

To properly train soldiers, Paik established large-scale training facilities on Jeju Island and in Nonsan; in addition to sending officers to the United States to acquire the latest military education. Upon their return, these officers were tasked with instructing and training Korean soldiers; thus, establishing a training system that enabled the Korean military to develop and train its own soldiers.

January 31, 1953	Age: 33	Before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his term, General Van Fleet, the commander of the US Eighth Army, suggested to President Rhee Syngman that with the South Korean military now exceeding 600,000 troops, a general officer was needed to lead the South Korean military. This culminated with General Van Fleet, together with President Rhee, promoting Lieutenant General Paik Sun-yup to become the first Army General in the history of Korea.
May 1953	Age: 33	General Paik held a concurrent post as the President of the ROK Army College.
May 13, 1953	Age: 33	Army Chief of Staff Paik had a one-on-one meeting with U.S. President Eisenhower at the White House, which resulted in the signing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economic support measures.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in early May 1953, General Paik Sun-yup was invited by the U.S. Army Chief of Staff to visit various military facilit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for advanced command training. While discussing the future of Korea with his old friend and fellow soldier, Admiral Burke of the U.S. Navy, whom had fought alongside him during the Korean War, General Paik learned about the Mutual Defense Treaties that the United States had with other countries. The next morning, General Paik visited the U.S. Army Chief of Staff and requested a one-on-one meeting with President Eisenhower. Initially, the U.S. Army Chief of Staff declined, stating that the President did not have time for such a meeting. However, he was eventually granted a meeting with President Eisenhower at the White House, which led to the signing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economic support measur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General Paik Sun-yup persisted in his requests to meet with President Eisenhower, despite being told that a meeting with the U.S. President was difficult. He argued that he was acquainted with the President when he gave a significant briefing to him the previous year, and as the Chief of Staff who dealt with numerous casualties (both American and Korean) on the battlefield every day, he was qualified to meet with the President. He waited outside the U.S. Army Chief of Staff's office from morning until evening, without backing down from his position. Eventually, the U.S. Army Chief of Staff, who had forme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General Paik on the battlefield, contacted the White House and arranged a one-on-one meeting between General Paik and then President Eisenhower.

On the morning of May 13, 1953, General Paik Sun-yup had a one-on-one meeting with President Eisenhower at the White House without an interpreter. He expressed the Korean people's desire for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general opposition to the armistice and proposed the signing of a "Mutual Defense Treaty" in order to ensure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s well as "economic support measures." The U.S. President expressed his position of "agreement in principle" on these matters and explained the next steps which needed to be taken. At that time, there were no prior government interactions concerning a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discussions between General Paik and the U.S. President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historic signing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on October 1, 1953, five months after their meeting at the White House, and it has been a cornerstone for the development and stability of South Korea for the past seven decades.

July 27, 1953	Age: 33	The Armistice Agreement is signed.
August 1953	Age: 33	Army Chief of Staff Paik Sun-yup began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the commander of the US Eighth Army to initiate a large-scale post-war reconstruction project across the nation. This effort mobilized both Korean and US soldiers to rebuild a vast number of public facilities, including hospitals, schools, bridges, and churches that were damaged during the war. As a result, approximately 900 schools, 200 hospitals and orphanages, and 300 churches were reconstructed during this time.
October 1, 1953	Age: 33	The Mutual Defense Treaty was signe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Life		(15 years)
February 14, 1954	Age: 34	The First Field Army⁶⁾ is established with General Paik as its inaugural Commander. After the armistice, the majority of the 155-mile ceasefire line was assigned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General Taylor, the commander of the US Eighth Army, believed that a separate field army was necessary to command all army divisions. He appointed General Paik Sun-yup as the inaugural field army commander. Under his leadership, the 1st Field Army –consisting of four corps and sixteen divisions– was established in Wonju. General Paik served as the inaugural commander of the 1st Field Army for 40 months, during which he trained and educated the newly formed army, responsible for defending the armistice line, through practical training and education.
August 1957	Age: 37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Military Cemetery: General Paik Sun-yup played a key role in planning and establishing a national military cemetery to honor the soldiers who sacrificed their lives during the Korean War. With the approval of President Rhee, he oversaw the development of the cemetery in the Dongjak-dong area over a three-year period. In 1957, the National Military Cemetery was officially opened, providing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gave their lives for their country. In 2006, its name was changed to "Seoul National Cemetery" to reflect its status as a national symbol of remembrance and gratitude.
May 18, 1957	Age: 37	General Paik was re-appointed as the 10 th Army Chief of Staff.
March, 1958	Age: 38	General Paik Sun-yup, as the Army Chief of Staff, led a delegation of staff officers to visit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negotiate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military's equipment, which numbered over 700,000 troops at the time. He briefed US officials at the Pentagon in detail about the Korean military's modernization plan and then met with President Eisenhower, receiving his support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military, including: the Army, Navy, and Air Force.
February 23, 1959	Age: 39	Appointment a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OTC system in Korean Army based on the U.S. ROTC system: General Paik Sun-yup introduced the U.S. ROTC system to train and produce army officers for the South Korean army. He conducted extensive research and review and finalized the plan to introduce the system during his tenure. Two years after General Paik retired from the military (June 1962), the first cohort of Army ROTC cadets was produced.
April 19, 1960	Age: 40	The April 19 Revolution occurred.
May 31, 1960	Age: 40	General Paik retired, completing 15 years of military service as an Army General.

6) A field army consists of approximately 80,000 to 200,000 servicemen.

Diplomatic Career (10 years)

General Paik Sun-yup served as a public servant in two significant areas following his retirement from the military. As a diplomat, he held the post of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France, and Canada while he was accredited as ambassador to 18 other nations.

As a public servant in industry, he promoted the country's industrial development with great passion for nearly a decade, serving as the Minister of Transportation and as the president of Korea Integrated Chemical Inc.

July 15, 1960	Age: 40	Ambassador Paik Sun-yup recognized the struggles faced by many Korean migrants upon his appointment a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As a result, He provided them with economic support and established Korean language schools for their children during his tenure.
May 16, 1961	Age: 41	The government was overthrown by the military in a coup d'état led by Park Chung-hee.
July 4, 1961	Age: 41	During the post-Korean War era, South Korea faced a challenging foreign affairs environment, especially after the May 1961 military coup by President Park Chung-hee. Ambassador Paik Sun-yup was tasked with promoting the legitimacy of the new government and forging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foreign nations. Toward this, He worked diligently to pioneer new diplomatic ties, rather than enjoying a more relaxed ambassadorial role. In July 1961, retired Army General Paik Sun-yup took office as the ambassador to France after completing his service as the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During his tenure of 4 years and 3 months in France, he concurrently served as the ambassador to a total of 18 countries, including five Western European countries (Spain, Portugal, Belgium, the Netherlands, and Luxembourg) and 13 African countries (Senegal, Mauritania, Ivory Coast (present-day Cote d'Ivoire), Togo, Dahomey (present-day Benin), Niger, Chad, Gabo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Brazzaville Congo, Kinshasa Congo, Madagascar, and Upper Volta (present-day Burkina Faso). Heads of state and key figures in Europe and Africa, including UN member countries that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were well aware of General Paik Sun-yup as the Army Chief of Staff who had led the Korean War, rather than Ambassador Paik Sun-yup. General Paik always recognized this fact and worked tirelessly to expand South Korea's diplomatic influence with a flawless demeanor and posture. In 1964, he repatriated the remains of Lee Jun (an advocate of Korean nationalism), who had died in the Netherlands, in addition to completely blocking North Korea's diplomatic efforts in France.

Diplomatic Career (10 years)

July 12, 1965

Age: 45

Ambassador Paik Sun-yup always said, "Koreans become ambassadors as soon as they leave the country, not just when they are appointed as diplomats."

As the first Korean Ambassador to Canada, Ambassador Paik Sun-yup established and pioneered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Canada, actively developing a strong friendship with the country that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This laid a solid foundation for a diplomat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states.

At that time, Ambassador Paik personally intervened to resolve visa issues faced by Koreans traveling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Moreover, Korean miners and nurses working in Germany wished to migrate to Canada, but their requests were in violation of Korean government policy, thus the Korean Embassy in Canada was unable to extend their passports. Understanding the plight of Korean immigrants, Ambassador Paik took full responsibility and ordered the extension of passports for all Koreans who desired them.

Public Life (10 years)

October 21, 1969

Age: 49

After serving for a decade as a diplomat, Ambassador Paik Sun-yup was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Transportation and returned to Korea in 1969. Unlike when General Paik Sun-yup left the country ten years earlier, the capital city of Seoul was on the verge of surpassing 10 million inhabitants, as many people were immigrating from rural areas to find work during the early stages of industrialization. The sudden surge in population caused severe traffic congestion in the city, with the only means of transportation being the "drum buses" (buses made from oil-drums discarded by the US military) and trains. The city urgently needed a subway system, but the government could not afford the astronomical investment required to build one. As an stop-gap measure, the railway was decentralized by dispersing the departure stations. While the mainline (Gyeongbu) continued to use Seoul Station as its departure point, the Honam Line and Janghang Line were moved to Yongsan Station, while the Jungang Line and Gyeongchun Line were relocated to Cheongnyangni Station, in order to limit the concentration of passengers at Seoul Station.

Minister Paik Sun-yup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previous measures and believed that the construction of a subway system was essential to solving the city's traffic congestion. He, therefore, focused on subway construction. However, obtaining such a significant amount of funding was a challenging task at the time, he, having served as Ambassador to France, Minister Paik preferred the Paris Metro; however, it was concluded that the Japanese subway system was more advantageous for Korea in terms of technology and cost. Amidst these various difficulties, an unexpected event occurred: the Yodo-go Hijacking Incident.

Public Life		(10 years)
March 31, 1970	Age: 50	While serving as the Minister of Transportation and overseeing Gimpo Airport, the Yodo-go Hijacking Incident took place. In 1970, nine pro-North Korean agents hijacked a Japan Airlines domestic flight and demanded that it be flown to Pyongyang. The pilot informed authorities at Gimpo Airport of the situation and requested permission to land there, which was granted, to deceive the hijackers, the airport was disguised to resemble Pyongyang Airport. South Korean soldiers dressed in North Korean military garb and hung a banner welcoming the hijackers to Pyongyang. Unfortunately, the hijackers were not convinced and demanded to see a giant portrait of Kim Il-sung, which Gimpo Airport did not possess. Eventually, a Japanese government official volunteered to be taken hostage in exchange for the passengers. The incident was resolved without any casualties, and the Vice Minister of Transport, who had been taken hostage, thanked Minister Paik for his assistance and promised to fulfill any request he had. Minister Paik requested Japan's technical assistance and funding to build a subway system in Seoul, which was granted. In April 1971,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construction of Seoul's first subway line took place. Today,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advanced subway systems.
June 1971	Age: 51	In 1971, Minister Paik Sun-yup was appointed as the CEO of Chungju-Honam Fertilizer Corporation. The first major challenge he faced was a shortfall in fertilizer production which led to a shortage of food. As the country was heavily investing in the development of it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Minister Paik worked towards increasing fertilizer production, resulting in a dramatic improvement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Later on, to ensure the smooth production and supply of fertilizer, all fertilizer companies were integrated into Korea Integrated Chemical Inc, and Paik Sun-yup was appointed as its inaugural president.
April 1973	Age: 53	From 1973 to 1980, Paik served as the president of Korea Integrated Chemical Inc., a state-owned enterprise. During his tenure, he secured all the necessary technical assistance and funding for factory construction, resulting in the construction of a total of 14 chemical plants. His contributions were vital to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centered o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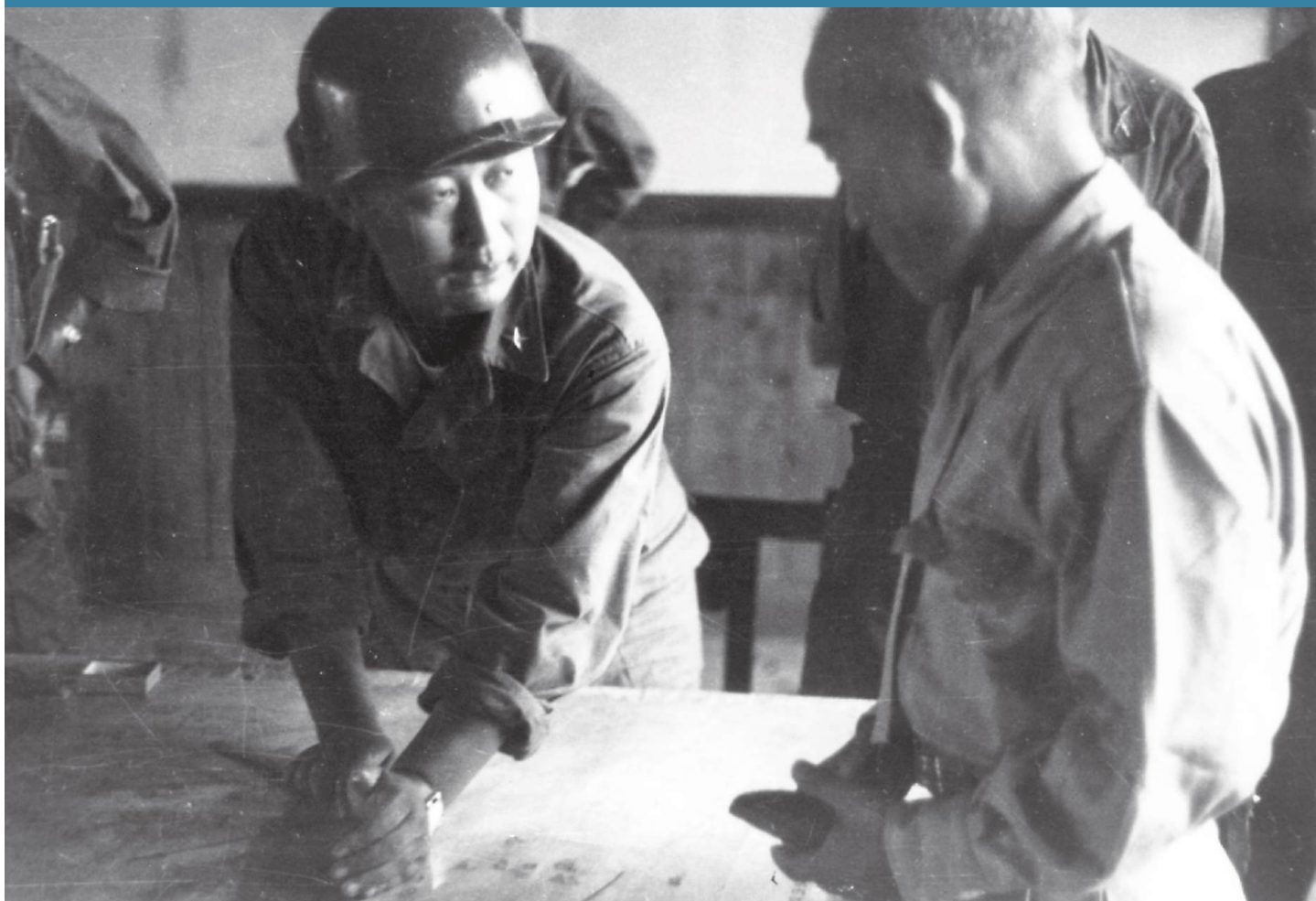
Public Service (33 years) as Military Elder Statesman		
July 1986	Age: 66	Advisor to the Board of National Unification (4 years)
July 1989	Age: 69	He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Fundraising Association which aimed to build the Yongsan War Memorial for two years and five months.
December 1989	Age: 69	The Korea Retired Generals and Admirals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of retired generals and admirals in Korea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forming the public about national security and supporting the military in times of national crisis. At the request of retired general officers, Ret. General Paik Sun-yup re-established the disbanded the Association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in 1980 under the principles of being "non-political, non-religious, and non-profit," and he was sworn in as the organization's president. Additionally, as a civilian, Ret. General Paik founded numerous security organizations to help solidify the ROK-U.S. alliance. In 1993, he launched the Council on Korea-U.S. Security Studies, serving as the inaugural president and regularly traveling between Korea and Washington, D.C.
September 1998	Age: 78	Ret. General Paik was appointed Chairman of the Korean War Memorial Program Committee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November 2003 to early 2020	Ages: 83 to 100	Ret. General Paik was appointed Chairman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position that Paik held for 17 years was an honorary role as an advisor to the War History Compilation and Research Department of th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which aimed to document the Korean War as a historical record. He was responsible for verifying the accuracy of numerous research publications related to the Korean War and providing testimony on the specific events at the time.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ublished several volumes of <i>The History of the Korean War</i> from 2003 to 2012, and General Paik Sun-yup's testimony and input are reflected throughout the project.
February 2007	Age: 87	Ret. General Paik Sun-yup served as the inaugural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AROKA) for seven years. AROKA was the first private corporation in Korea dedicated to supporting the army.
April 2009	Age: 89	Paik was also selected to be an advisor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for the National Senior Council.

**Public Service (33 years)
as Military Elder Statesman**

June 2010	Age: 90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he was appointed as the inaugural chairman of the Korean War Memorial Foundation and also implemented a scholarship program for the descendants of Foreign Servicemen who served in the Korean War.
August 2013	Age: 93	Retired General Paik Sun-yup received the title of "Honorary U.S. Eighth Army Commander" in recognition of his outstanding achievements during the Korean War and for his leadership of US and ROK troops after the armistice. This was the first time the US Army had ever granted such an honor to a foreign military figure. H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nsuring that the historical value and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was not forgotten. He also acted as a representative of retired generals;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to meet with US officials, and advocating for the Korean military's position when sensitive security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ose.
October 2015	Age: 95	Paik received an Honorary Doctorate in Military Science conferred as the first recipient from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July 10, 2020	Age: 100	General Paik Sun-yup passed away due to canc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t the age of 100. General Paik Sun-yup, who referred to himself as an "old soldier," was born in a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 1920. In 1946, He joined the newly-formed military at the age of 25 with the belief of protecting the freedom and democracy that is sacred to the Republic of Korea. To this end, He served during the Korean War, rose to become the ROK's first army general, and retired in 1960 after 14 years of service. During his 10-year career as an ambassador in his 40s, he forged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21 foreign states. Then, in his 50s, he served as a government official and devoted himself to developing the nation's economy, by establishing subway systems and 14 chemical factories in the 1970s. After retiring from public service in 1980 at the age of 60, General Paik dedicated himself to promoting ROK-US friendship and prosperity while enhancing the value of the ROK-US alliance for the remaining 40 years of his life as a civilian. Despite the ongoing reality of the "ceasefire," serving as a reminder that the war was not yet over, he continued his service until his passing at the age of 100.

C O L L E C T I O N O F G E N E R A L
P A I K ' S M E D A L S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다부동 전황을 보고하는 제1사단장 백선엽 장군(1950. 8. 23.)

General Paik Sun-yup, the 1st Division commander, reporting on the situation at Dabu-dong battles to Defense Minister Shin Sung-mo (August 23, 1950).



평양 입성 후 미 1군단장 밀번 소장에게 평양 탈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백선엽 제1사단장(1950. 10. 19.)

1st Division Commander Paik Sun-yup explaining the situation of Pyongyang liberation to Major General Milburn, commander of the US 1st Corps, after entering Pyongyang (October 19, 1950)



美 1군단장 밀번 소장으로부터 미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백선엽 제1사단장(1950. 10. 20. 평양 선교초등학교)

1st Division Commander Paik Sun-yup receiving the U.S. Silver Star Medal from Major General Milburn, commander of the US 1st Corps, at Seonggyo Elementary School in Pyongyang (October 20, 1950)



美 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에게 서울 재탈환 작전을 보고하는 백선엽 제1사단장(1951. 2월 초, 경기도 시흥)

1st Division Commander Paik Sun-yup reporting the plan for Seoul recapture to Lieutenant General Matthew Ridgway, commander of the U.S. Eighth Army (early February 1951 in Siheung, Gyeonggi Province)



서울 재탈환 후 만리동 초등학교의 제1사단사령부를 방문한 UN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를 영접하는 백선엽 장군(1951. 3. 24.)

General Paik Sun-yup welcomed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he commander of the UN forces, during his visit to the 1st Division's command post at Manridong Elementary School in Seoul after the city was recaptured (March 24, 1951)

C O L L E C T I O N O F G E N E R A L
P A I K ' S M E D A L S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태극무공훈장 제7호’를 수여받은 1군단장 백선엽 소장(1951. 4. 15.)

Major General Paik Sun-yup, the 1st Division Commander, received the 7th Taegeuk Order of Military Merit (April 15, 1951)



美 구축함 로스앤젤레스호 방문 시 백선엽 1군단장을 영접하는 버크 미 해군제독(1951. 6월 중순, 동해안)

Admiral Burke of the US Navy receiving 1st Division Commander Paik Sun-yup during his visit to the USS Los Angeles (mid-June 1951, East coast)



최초의 휴전회담장 개성으로 출발 직전, 헬기 앞에 선 UN측 대표단. 리지웨이 UN군사령관이 격려차 직접 전송 나눔(좌로부터 버크 해군제독, 크레이기 공군 소장, 백선엽 국군 1군단장, 수석대표 조이 해군제독, 리지웨이 UN군사령관, 호디스 육군 소장)(1951. 7. 10. 문산 평화촌)

The UN delegation standing in front of the helicopter, ready to depart for the first armistice talks in Gaesong. UN Commander Ridgway appears to encourage the delegation. (From left to right: Admiral Burke, Air Force Major General Craigie, ROK 1st Corps Commander Paik Sun-yup, Admiral Joy, the head of the delegation, UN Forces Commander Ridgway, and Major General Hodes (July 10, 1951, Munsan Peace Village)



휴전회담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UN측 대표단. 급히 군단장 전투복장 그대로 첫날 회담에 임했던 백선엽 장군이 회담을 위한 근무복으로 갈아입었다.(1951. 7. 16. 개성 내봉장)

UN delegation takes a short break at the armistice negotiation site. General Paik Sun-yup, who had hastily attended the first day of the talks in his combat uniform, changed into his service uniform for the negotiations. (July 16, 1951, Naeboongjang in Gaesong)



언더우드 美 해군 대위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백선엽 장군. 언더우드 대위(한국명: 원일한 박사)는 美國의 첫 개신교 선교사였던 그랜트 언더우드의 손자로 당시 UN측 대표단 통역장교로 근무했다.(1951. 7. 22.)

General Paik Sun-yup is seen receiving a report from Lieutenant Underwood of the US Navy. Lieutenant Underwood, also known as Dr. Won Il-han in Korean, was the grandson of Grant Underwood, the first Protestant missionary to Korea. At the time, he served as the interpreter for the UN delegation. (July 22, 1951)



美 9군단장 와이만 소장이 창설부대기를 국군 2군단장 백선엽 중장에게 전달하고 있다.(1952. 4. 5. 강원도 화천)

Lieutenant General Paik Sun-yup, the commander of the ROK 2nd Corps, receiving the unit flag from Major General Wyman, the commander of the US 9th Corps, during a ceremony (April 5, 1952 in Hwacheon, Gangwon Province)



그리스 참모총장 차키라토스 장군으로부터 그리스 최고훈장을 수여받는 백선엽 제2군단장(1952. 6. 22. 대구)

Commander of the ROK 2nd Corps Paik Sun-yup receiving the highest Greek military decoration from General Chakiratos, the Greek Chief of Staff (June 22, 1952, Daegu)



미국으로 유학 떠나는 250명의 장교단 환송식에 참석한 한미 양측 사령관
(밴플리트 美 8군사령관, 백선엽 육군참모총장, 라이언 美 군사고문단장)

US and ROK commanders (U.S. Eighth Army Commander Van Fleet, Army Chief of Staff Paik Sun-yup, and General Ryan, Chief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ttending a farewell ceremony for a group of 250 officers leaving for study in the US



1952년 크리스마스(X-mas)에 美 8군사령부를 격려차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 부처와 함께 기념촬영한 백선엽 참모총장과 밴플리트 장군 (1952. 12. 24. 서울 동송동)

On Christmas day, Army Chief of Staff Paik Sun-yup and General Van Fleet were photographed with President Rhee Syngman and his wife during their visit to the U.S. Eighth Army command to offer encouragement. (December 24, 1952, Dongsoong-dong in Seoul)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테일러 美 8군사령관이 백선엽 대장에게 美 공로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1953. 3. 26. 동송동 美 8군사령부)

In the presence of President Rhee Syngman, U.S. Eighth Army Commander Taylor is awarding General Paik Sun-yup with a U.S. Distinguished Service Medal (March 26, 1953, U.S. Eighth Army headquarters in Dongsoong-dong)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美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생도대장 마이켈리스 준장에게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백선엽 참모총장. 마이켈리스 장군은 6·25전쟁 다부동 전투 시 美 27연대장으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을 도와 bowling alley(Bowling Alley)에서 승리를 이끈 명장으로 훗날 美 8군사령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1953. 5. 15. 美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During h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General Paik Sun-yup presented the Eulji Order of Military Meri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Brigadier General Michaelis, the commandant of the academy. General Michaelis had previously led the U.S. 27th Regiment during the Battle of Dabu-dong in the Korean War and supported General Paik's First Division in the victory at the Bowling Alley. Later, he served as the commander of the U.S. Eighth Army. (May 15, 1953, West Point)



6·25전쟁 중 지리산 공비토발작전으로 발생한 전쟁고아들을 살리기 위해 광주 송정역 앞에 백 장군님 사비로 긴급히 세운 고아원 (1958년경, 2차 육군참모총장 재직 시 ‘백선고아원’ 방문) 훗날 백선고아원은 1992년 대구천주교구 수녀회에 기증되어 지금은 전남 광산군으로 이전, ‘백선바오로의 집’으로 개명하여 현재는 수녀들에 의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During the Korean War, an orphanage was urgently established in front of Gwangju Songjeong Station to save war orphans who were left in the wake of the operations to eradicate red guerrillas in Jirisan mountain. The orphanage was built with funds donated by General Paik Sun-yup. (General Paik visited the orphanage when he was serving as the Army Chief of Staff for the second term in 1958) Later, the orphanage: named Paiksun orphanage was donated to the convent of the Daegu Catholic Diocese in 1992. It was later relocated to Gwangsan-gun, Jeollanam-do and renamed "Paiksun Paul's House". It is currently being operated as a childcare center for disabled children by the nuns.

6·25전쟁 사진

* 사진제공: 전쟁기념관 오픈 아카이브



6·25전쟁으로 3년 만에 만나는 모자

6·25전쟁으로 오랜만에 만나 기뻐하는 모자의 모습이다.

Reunion of a mother and a son in three years due to the Korean War

It is the heartwarming scene of a mother and a son reuniting happily after a long separation due to the Korean War.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백선엽
장훈
모음집



1950년 원산상륙작전, 원산항 상륙정 사진

1950년 10월 26일 미국 상륙정(LVT)이 원산만에 상륙하고 있는 사진이다.

Photo of Wonsan Landing Operation and Landing Vehicle Tracked, 1950

A U.S. Landing Vehicle Tracked (LVT) landing in Wonsan on October 26, 1950.



1950년 한강을 건너 상륙한 해병대

1950년 9월 20일 한강을 건너 상륙한 해병대의 모습이다.

Marine Corps landing after crossing the Han River in 1950

This photo depicts the Marine Corps making a landing after crossing the Han River on September 20, 1950.



1950년 함흥에 들어가는 수도사단

1950년 10월 18일 함흥으로 진입하는 수도사단의 모습이다.

Capital Defense Division entering Hamheung in 1950

This is a photo of the Capital Division entering Hamheung on October 18, 1950.



1950년대 천막이 늘어선 판문점 풍경

천막으로 지어진 유엔군과 공산군의 막사들이 보인다.

A view of Panmunjom in the 1950s with rows of tents

The scene shows tent barracks of both the UN and communist forces.

1951년 강릉 고지 탈환 후 환호하는 모습

1951년 강릉 고지(高地) 탈환 후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부대원들의 모습이다.

A scene of soldiers cheering after recapturing the Gangneung high ground in 1951

This is a photo of soldiers cheering with Taegeukgi flags after recapturing the Gangneung high ground in 1951.



1951년 한강을 건너는 보병 제1사단

1951년 3월 14일 한강을 건너는 보병 제1사단의 모습이다.

The 1st Infantry Division crossing the Han River in 1951

The 1st Infantry Division is crossing the Han River on March 14, 1951.



부두에서 드럼통을 옮기는 모습

부산 스웨덴 적십자 병원에서 근무했던 John Wikdahl이 촬영한 사진이다. 부두에서 드럼통을 옮기는 모습이다.

A scene of moving drums at the pier

This photo was taken by John Wikdahl, who worked at the Busan Swedish Red Cross Hospital.



월남한 피난민의 움막

부산 스웨덴 적십자 병원에서 근무했던 John Wikdahl이 촬영한 사진이다. 월남한 피난민의 움막 모습이다.

A makeshift hut of refugees in South Korea

This photo, taken by John Wikdahl who worked at the Busan Swedish Red Cross Hospital, depicts a makeshift hut constructed by refugees who fled to South Korea.

38선 표지석을 설치 중인 호주군

38선 표지석을 설치 중인 호주군의 모습이다.

Australian soldiers installing a marker stone for the 38th parallel

This is a scene of Australian soldiers installing a marker stone for the 38th parallel.



파괴된 대동강 철교
파괴된 대동강 철교의 모습이다.

Destroyed railway bridge over the Daedong River

This is a photo of the destroyed railway bridge over the Daedong River.



전투 중 부상병을 치료하는 모습
전투 중 발생한 부상병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다.

A scene of treating a wounded soldier during combat

This is a scene of treating a soldier that was wounded during combat.



태극기를 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병사 모습
1950년대 정전협정 이후 태극기를 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병사들의 모습이다.

Soldiers returning to their homeland holding the Taegukgi flag

This photo shows soldiers returning to their homeland carrying the Korean national flag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in the 1950s.

판잣집 마을
판잣집 마을 아이들과 미군 모습이다.

A village of shacks

The photo depicts children with a U.S. soldier in a village of shacks.





폐허가 된 도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다.

A city in ruins
This is a photo of a city devastated by the war.



제76 포로수용소
1952년 5월 29일, 공산군 포로들이 포로수용소 밖을 정찰하고 있는 모습이다.

The 76th Prison Camp
This is a photo of communist prisoners of war looking outside of the POW camp on May 29th, 1952.



포로 환자 이송
포로 환자를 업어서 이송하는 모습이다.

The transportation of a POW patient
This is a scene of a POW patient being carried on a South Korean soldier's back.

한국전쟁 고아들
호주 제77비행단 하사관 밥 뉴튼과 한국전쟁 고아들 모습이다.

Orphans of the Korean War
This is a photo of Staff Sergeant Bob Newton from the Australian 77 Squadron and Korean War orphans.



백선엽 장군 육군 대장 임명장

Letter of appointment of General
Paik Sun-yup as Army General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백선엽 장군의 6·25 전쟁 무관(武官) 훈장(36개)

General Paik's Orders of Military Merit in the Korean War(36)

대한민국 훈장

Orders of the
Republic of Korea

- 70 일등무공훈장(제7호) First Order of Military Merit(No. 7) 1951. 7. 26.
- 74 태극무공훈장(제100호) Order of Taegeuk Military Merit(No. 100) 1953. 4. 5.
- 78 태극무공훈장(제549호)
Order of Taegeuk Military Merit(No. 549)(Army Headquarters Infantry Division 1)
- 80 태극무공훈장(제550호)
Order of Taegeuk Military Merit(No. 550)(Army Headquarters Army General Staff)
- 82 을지무공훈장(제975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No. 975) 1950. 10. 30.
- 84 을지무공훈장(제2070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No. 2070) 1950. 10. 30.
- 86 을지무공훈장(제3425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No. 3425) 1952. 12. 10.
- 88 을지무공훈장(제3426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No. 3426)
- 90 충무무공훈장(제582호) Order of Chungmu Military Merit(No. 582) 1950. 12. 20.
- 92 충무무공훈장(제2834호) Order of Chungmu Military Merit(No. 2834) 1950. 12. 30.
- 94 화랑무공훈장 Order of Hwarang Military Merit
- 95 방위포장(1950년대) Medal of Honor for Defense(1950s)
- 96 국제연합 헌장 옹호 공훈훈장
Order of Merit for Advocating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98 무공포장 Medal of Honor for Military Merit 1956. 10. 29.
- 99 6·25전쟁 종군기장 Korean War Service Badge

미국 훈장

Ord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100 은성훈장 Silver Star Medal 1950. 11. 13.
- 103 동성훈장 Bronze Star Medal 1953. 5. 12.
- 107 항공훈장 Air Medal 1952. 7. 28.
- 112 공로훈장(최고 사령관) Legion of Merit(Degree of Chief Commander)
- 116 공로훈장(사령관) Legion of Merit(Degree of Commander) 1953. 2. 25.
- 120 공로훈장(장교) Legion of Merit(Degree of Officer) 1950. 7. 25.
- 124 공로훈장(레지온네어) Legion of Merit(Degree of Legionnaire) 1951. 1. 22.

● 외국
훈장
Foreign Country
Medals

- 프랑스 공화국: The French Republic
128 레지옹 도뇌르(명예 군단 훈장) Legion d'honneur = Legion of Honor 1954. 9. 11.
133 전쟁 십자 훈장(TOE)
Croix de Guerre des Theatres d'Operations Exterieures(TOE)
벨기에 왕국: The Kingdom of Belgium
135 레오폴 드 국왕 훈장(사령관)(제2935호)
Commandeur de L'ordre de Léopold(No. 2935) 1954. 8. 06.
네덜란드 왕국: Kingdom of the Netherlands
137 (한국 1950)정의와 자유 십자 훈장
Cross for Justice and Freedom Medal 1954. 8. 24.
그리스 왕국: Kingdom of Greece
139 대십자 불사조 훈장(그랜드 커맨더)
Grand Cross of the Order of the Phoenix 1952. 6. 22.
141 국왕 조지 1세 훈장(그랜드 커맨더) Royal Order of George I
쿠바 공화국: Republic of Cuba
142 수훈근무 훈장 Distinguished Service Medal
중화민국: The Republic of China
144 구름과 깃발 훈장(군사 메달) Order of the Cloud and Banner
149 찬란한 별 훈장(민간 훈장) Order of Brilliant Star(Order of Brilliant Star)
태국 왕국: Kingdom of Thailand
151 흰 코끼리 훈장(나이트 그랜드 꼬르동과 나이트 커맨더)
Order of the White Elephant(Knight Commander of the Most Exalted Order)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158 레지옹 도뇌르 훈장(사령관)(제556호) Legion of Honor(Commander)(No. 556)
에티오피아: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161 에티오피아의 별 훈장 Order of the Star of Ethiopia
어퍼 볼타 공화국(현재 부키나파소)
: Republic of the Upper Volta(present Burkina Faso)
162 어퍼 볼타 국가의 훈장(사령관) National Order of Upper Volta(commander)
니제르 공화국: Republic of Niger
163 니제르 국가 공로 훈장 Merit du Niger

백선엽 장군의 문관(文官) 훈장(11개)

General Paik's Civilian Medals(11)

대한민국 훈장 The Republic of Korea

- 164 **일등수교훈장(제245호)**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1st. rank)(No. 245) 1963. 12. 7.
- 166 **이등수교훈장(제14호)**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2nd. rank)(No. 14) 1970. 8. 15.
- 168 **이등수교훈장(제108호)**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2nd. rank)(No. 108)
- 170 **금탑산업훈장(제164호)**
Order of Industrial Merit(Gold Pagoda)(No. 164) 1980. 1. 29.
- 172 **석탑산업훈장(제1041호)**
Order of Industrial Merit(Stone Pagoda)(No. 1041) 1978. 3. 20.

미국 훈장 The United States

- 174 **국방부 훈장(수훈 공공 근무 훈장)** Department of Defense Medal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 176 **미국 육군 훈장(수훈 민간 근무 훈장)** Army Medal(Outstanding Civilian
Service Award Medal)

프랑스 공화국 The French Republic

- 178 **국가공로 훈장(1965)** Ordre National du Merit(received in 1965)

캐나다 Canada

- 180 **공적 훈장(2005. 7. 13.)** Order of Merit(received on July 13th, 2005)

일본 Japan

- 182 **훈 2등 서보장**
Order of the Sacred Treasure of Japan Hun 2nd class servo
- 182 **훈 3등 서보장**
Order of the Sacred Treasure of Japan Hun 3rd class servo

대한민국 일등무공훈장(금성)

[제7호]

First Class Order of Military Merit(with Gold Star)
(No. 7)



[수여일: 1951. 7. 26.]

대한민국 일등무공훈장(금성) [제7호]

First Class Order of Military Merit(with Gold Star)
(No. 7)



일등(태극)무공훈장 제7호

단기 4284년(서기 1951년) 7월 26일, 일등(태극) 무공훈장 제 7호
보병 제 1 사단장 육군소장 백선엽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6월 25일 부터 동년 10월 25일에 일단하여 38선 서부 일대에서 압도
적으로 우세한 적과 도처에서 백병전을 교하여 그 진공을 저지하고 그 후 영천지구에서 전전하자
적의 수개 사단을 교묘히 유도하여 이를 섬멸하고 총반격전이 개시되자 적의 본거 평양에 제일착
으로 돌입하여 국군의 위용을 만방에 선양하였음.

단기 4284(서기 1951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달케 함.
국가기록원 (나라 기록관) 확인

7th Order of Military Merit (Taegeuk)

Date: July 26, 1951, in accordance with the Dangi calendar of the year 4284

Type of Medal: 7th Taegeuk (1st class) Order of Military Merit

Recipient: Army Major General Paik Sun-yup,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1st Infantry Division

During the period of June 25, 1950 (Dangi Year 4283) to October 25 of the same year, General Paik Sun-yup led his army in hand-to-hand battles with the enemy in various locations in the western region of the 38th parallel, despite being vastly outnumbered. His unwavering efforts successfully deterred the enemy's advance. Later, in the Yeongcheon region, General Paik skillfully lured and annihilated several enemy divisions. When a full-scale counterattack was launched, he was the first to fearlessly enter the enemy's stronghold of Pyongyang, demonstrating the valor of the Korean military to the world.

On August 20, 1951 (according to the Dangi calendar, the year 4284), General Paik Sun-yup was awarded the medal, which was present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Verifi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

[제100호]

Order of Taegeuk Military Merit(with gold star)
(No. 100)



[수여일: 1953. 04. 05.]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 [제100호]

Order of Taegeuk Military Merit(with gold star)
(No. 100)



금성태극무공훈장 제100호

단기 4286년(서기 1953년) 4월 5일, 금성태극무공훈장 제100호

육군 본부 육군총참모장 육군중장 백선엽

단기 4285년(서기 1952년) 7월 23일 육군 참모총장으로 취임 이래 포병단 및 사단장을 증강하여 각 기술부대를 창설하는 등 중책 완수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동 중장의 애국지성과 탁월한 군사적 역량은 실로 우리 국군의 대표적 감성인 것임

백 중장은 국군 창설 당시부터 건군과 군의 실력 배양에 노력하였으며 그후 단기 4283년 10월 제2 군단을 창설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제1사단장, 제1군단장 전투사령관을 역임하는 기간 중 광범한 군사지식과 용감한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허다한 대공전투에 있어서 무적상승의 장군으로서 그 영웅적 용맹을 국내외에 선양하였으며 특히 평양 수복에 있어서는 유엔 제국군과의 협동 작전에서 최우선적으로 평양에 돌입하여 국군의 명예를 세계만방에 빛나게 하였으며 또한 영호지구의 공비 토벌에 있어서 험준한 지세와 불순한 기후 하에 삼엄한 군기를 확립하여 민습 근절을 도모하고 풍찬노숙을 하면서 치열한 포위공세를 취하는 일방 심리전술과 선무공작을 병행하여 적의 지리산 본거에 치명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후방 치안을 명랑케 하였음은 물론 일선 사기 앙양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

국가 기록원 (나라 기록관) 확인

100th Taegeuk Order of Military Merit with Gold Star

Date: April 5, 1953 (Dangi year 4286)

Type of Medal: 100th Taegeuk Order of Military Merit with Gold Star

Recipient: Lieutenant General Paik Sun-yup, Army Chief of Staff, Army Headquarters

Since assuming the position of Chief of Staff of the Army on July 23, 1952 (Dangi Year 4285), Lieutenant General Paik Sun-yup demonstrated exceptional capabilities in carrying out critical duties. He reinforced the artillery and division commanders and established respective technical units. His unwavering patriotism and outstanding military prowess truly embody the spirit of the Korean milita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military, Lieutenant General Paik had dedicated his efforts to developing the military's strength and capabilities. During his tenure as commander of the 1st Division and combat commander of the 1st Corps, he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2nd Corps in October of Dangi Year 4283 and demonstrated his extensive military knowledge and courageous spirit in numerous anti-aircraft battles, earning him the reputation of an invincible general for his heroic valor at home and abroad.

In particular, during the recapture of Pyongyang, he was the first to enter the city in a joint operation with UN forces, bringing honor to the Korean military worldwide. Additionally, during the campaign to suppress communist guerrillas in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he established strict military discipline under harsh conditions of rugged terrain and unfavorable climate and led a relentless encirclement campaign by employing both unilateral psychological tactics and pacification operations. He inflicted a fatal blow on the enemy's main stronghold of Jirisan mountain, thereby enhancing the security of the rear and greatly boosting morale at the frontlines.

Verifi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

[제549호]

Order of Taegeuk Military Merit(No. 549)
(Army Headquarters Infantry Division 1)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 (제549호)

Order of Taegeuk Military Merit(No. 549)
(Army Headquarters Infantry Division 1)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

[제550호]

Order of Taegeuk Military Merit(No. 550)
(Army Headquarters Army General Staff)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 (제550호)

Order of Taegeuk Military Merit(No. 550)
(Army Headquarters Army General Staff)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제975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
(No. 975)



[수여일: 1950. 10. 30.]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제975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
(No. 975)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제2070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
(No. 2070)



[수여일: 1950. 12. 30.]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제2070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
(No. 2070)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제3425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
(No. 3425)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제3425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
(No. 3425)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제3426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
(No. 3426)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제3426호]

Order of Eulji Military Merit
(No. 3426)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

[제582호]

Order of Chungmu Military Merit
(No. 582)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 [제582호]

Order of Chungmu Military Merit
(No. 582)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

[제2834호]

Order of Chungmu Military Merit
(No. 2834)



[수여일: 1950. 12. 30.]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 [제2834호]

Order of Chungmu Military Merit
(No. 2834)



대한민국 화랑무공훈장

Order of Hwarang Military Merit



대한민국 방위포장 (1950년대)

Medal of Honor for Defense
(1950s)



대한민국 국제연합 헌장 옹호 공훈훈장

Order of Merit for Advocating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Korea Medal

The United Nations Service Medal for Korea(UNKM) is an international military decoration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on December 12, 1950. This decoration was the first international award ever created by the United Nations. It recognized the multinational defense forces which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This Medal is awarded to any military service member, of an Armed Force allied with South Korea, who participated in the defense of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an invasion between June 27, 1950 and July 27, 1954.

UN 대한민국 훈장

UN 대한민국 훈장(UNKM)은 1950년 12월 12일 유엔이 제정한 국제 군사 훈장이다. 훈장은 유엔이 제정한 최초의 국제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다국적 방위군에게 수여되었다. UN군 근무 훈장은 1950년 6월 27일부터 1954년 7월 27일 사이에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참전한 남한과 동맹국의 군인에게 수여되었다.

대한민국 무공포장

Medal of Honor for Military Merit



[수여일: 1956. 10. 29.]

대한민국 6·25전쟁 종군기장

Korean War Service Badge



미국 은성훈장

Silver Star Medal



CITATION TO ACCOMPANY AWARD
OF SILVER STAR

Brigadier General Pak Sun Yup, 10054, Republic of Korea Army, as Commanding General, 1st Republic of Korea Infantry Division displayed gallantry in action against an armed enemy in the Kumwi-Tabudong, Korea area during the period 19 September 1950 to 22 September 1950. When one of the regiments of his division which had been given the mission of completing the encirclement of the "Walled City" encountered heavy enemy resistance, General Pak joined the forward elements of that regiment and, with complete disregard of his own personal safety, and in the face of intense enemy mortar and small arms fire, personally led them in an attack which overcame the enemy resistance and successfully effected a junction with elements of the 1st U.S. Cavalry Division. As a result of General Pak's fearless and exemplary actions great numbers of the enemy were destroyed or captured. General Pak's actions reflect great credit upon himself, the militar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은성무공훈장 동반 표창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사단장 백선엽 준장(10054)은 1950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군위-다부동(Kunwi-Tabudong) 지역에서 무장한 적에 대항하는 용감무쌍한 활약상을 보였다. “성곽 도시(Walled City)” 포위를 완료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단의 연대 중 하나가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을 때, 백선엽 장군은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해당 연대의 전방 부대에 합류하였으며, 또한 격렬한 적의 박격포와 소형 화기 사격에 직면하였다. 연합군은 적군의 저항을 이겨 내고 미국 제1기병사단과 성공적으로 합동 공격을 이끌어 내었다. 백선엽 장군의 용감하고 모범적인 활약상 결과, 많은 적들이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혔다. 백선엽 장군의 활약상은 그 자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 복무, UN에 대한 커다란 공로를 반영한다.

미국 동성훈장

Bronze Star Medal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ALL WHO SHALL SEE THESE PRESENTS, GREETING: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EXECUTIVE ORDER, FEBRUARY 4, 1944
HAS AWARDED

THE BRONZE STAR MEDAL

TO

General Paik Sun Yup, Republic of Korea Army

FOR

MERITORIOUS ACHIEVEMENT
IN GROUND OPERATIONS AGAINST THE ENEMY

in Korea, from 18 September to 25 November 1952

GIVEN UNDER MY HAND IN THE CITY OF WASHINGTON

THIS 12th DAY OF May 1953

Mark B. Smyth
MAJOR GENERAL, USA
THE ADJUTANT GENERAL



Robert J. Atwood
SECRETARY OF THE ARM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Executive Order, February 4, 1944, has awarded the Bronze Star Medal to

GENERAL PAIK SUN YUP, REPUBLIC OF KOREA AR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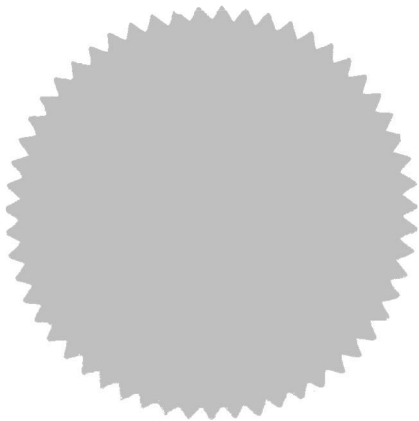
for meritorious service in ground operations against the enemy:

General Paik, Republic of Korea Army, distinguished himself by meritorious service while serving as Chief of Staff, Republic of Korea Army, in Korea, from 18 September to 25 November 1952. Displaying superb leadership and decisive judgment, General Paik reconnoitered the Waegwan incident and, seizing and retaining psychological initiative, he instituted remedial measures and organized an interim relief program to alleviate the physical suffering and feeling of insecurity of his former gallant soldiers. With compassionate understanding of the hardships and losses endured by disabled combat personnel, he advocated and caused to be established a veterans' bureau to insure the judicious administration of all aid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veterans' homes to care for the destitute. General Paik's exemplary actions and notable achievements resulted in the rehabilitation of approximately nine thousand displaced veterans and enhanced public acceptance and appreci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Korea, reflecting credit upon himself and the military service.



**미합중국 대통령은 1944년 2월 4일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적에 대한 지상 작전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대한민국 육군 백선엽 장군에게 동성무공훈장을 수여한다.**

대한민국 육군 백선엽 장군은 1952년 9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공로로 두각을 드러내었다. 뛰어난 지도력과 결단력 있는 판단력으로 왜관(Waegwan) 사건을 살펴보고 심리적 주도권을 유지한 백선엽 장군은 용감했던 전(前) 병사들의 육체적 고통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임시 구호 프로그램을 조직하였다. 그는 장애가 있는 전투 요원이 겪는 어려움과 손실에 대한 온정 어린 이해를 바탕으로 재향 군인국을 설립하여 재향 군인의 집을 포함한 모든 원조 물품과 서비스의 사법적 행정을 보장하도록 주도하고 이끌어 내었다. 백선엽 장군의 모범적인 행동과 주목할 만한 업적은 약 9천 명의 참전 용사들을 재활시켰으며, 유엔의 한국 임무에 대한 대중의 수용과 감사를 증대시켜 자신과 군 복무에 대한 공로를 반영하였다.



미국 항공훈장

Air Medal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ALL WHO SHALL SEE THESE PRESENTS, GREETING: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EXECUTIVE ORDER, MAY 11, 1942
HAS AWARDED

THE AIR MEDAL

TO

Lieutenant General Paik Sun Hup, Republic of Korea Army

FOR
MERITORIOUS ACHIEVEMENT
WHILE PARTICIPATING IN AERIAL FLIGHT

Korea, 20 December 1951 - 9 January 1952

GIVEN UNDER MY HAND IN THE CITY OF WASHINGTON
THIS 28th DAY OF July 19 52



W. B. Borden
MAJOR GENERAL, USA
THE ADJUTANT GENERAL

Frank Pace Jr.
SECRETARY OF THE ARM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Executive Order, 11 May 1942, has awarded the Air Medal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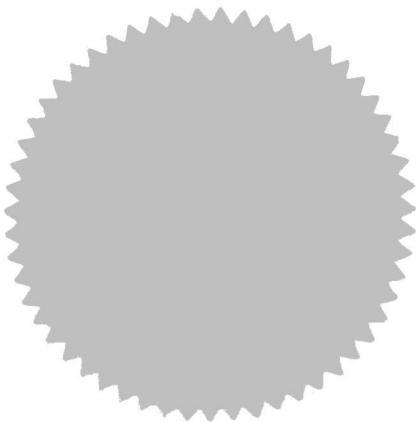
LIEUTENANT GENERAL PAIK SUN YUP
REPUBLIC OF KOREA ARMY

Lieutenant General Paik Sun Yup, Republic of Korea Army, distinguished himself by meritorious achievement while participating in aerial flight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 December 1951 to 9 January 1952. By performing twenty reconnaissance missions in support of Task Force "Paik" he obtained valuable information of the enemy which contributed materially to the success of the operations of that task force.



**미합중국 대통령은 1942년 5월 11일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대한민국 육군 백선엽 중장에게
항공훈장을 수여한다.**

대한민국 육군 백선엽 중장은 1951년 12월 20일부터 1952년 1월 9일까지 대한민국 육군 공중 비행에 참가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선엽 특수임무부대(백야전전투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20번의 정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적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는 해당 특수 임무부대의 성공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미 항공 훈장(The Air Medal)

백선엽 장군이 백(白) 야전전투 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중 백선엽 장군이 받은 훈장 중 美 항공 훈장(The Air Medal)이 있다. 이 무공훈장은 백선엽 장군이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공군정찰기를 직접 탑승하여 전장을 지휘한 공로로 美공군에서 수여한 훈장이다. 항공훈장은 전시에 20회 이상 적진 상공에 들어가 항공 작전에서 공적을 올린 美공군 조종사에 대해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타국의 육군 장성에게 이 훈장을 수여한 것은 특이한 일이다. 그런 훈장을 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백선엽 사령관은 지리산 주변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부대들과 지리산 일대의 공비들 상황을 살펴보고자 美정찰기(소형 경비행기)를 타고 사전 정찰을 하였고,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매일 두 차례 지리산 상공을 누비며 작전 현장을 지휘하였다. 지리산은 매우 험준하고 광대한 산악지역으로 한겨울의 산악지대 난기류는 때때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해서,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상공에서 급하강 기류(air pocket)를 만나면 백선엽 장군이 탄 정찰기는 200m, 300m 씩 급강하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정찰기 파일럿 美조종사는 매우 긴장해서 조종간을 잡고 진땀을 흘려야 했다고 한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美 공군은 규정에 따라 백선엽 장군에게 항공훈장을 수여하였다.

미국 공로훈장

[최고 사령관]

Legion of Merit
(Degree of Chief Comma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ALL WHO SHALL SEE THESE PRESENTS, GREETING: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ACT OF CONGRESS JULY 20, 1942
HAS AWARDED

THE LEGION OF MERIT

(Degree of Chief Commander)

TO

General Paik Sun Yup, 10054, Republic of Korea Army

FOR

EXCEPTIONALLY MERITORIOUS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OUTSTANDING SERVICES

Korea, 23 July 1952 - 14 March 1954

GIVEN UNDER MY HAND IN THE CITY OF WASHINGTON

THIS 31st DAY OF August 1954



John H. Stoen
MAJOR GENERAL USA
THE ADJUTANT GENERAL

Robert J. Stoen
SECRETARY OF THE ARM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Act of Congress July 20, 1942, has awarded the Legion of Merit (Degree of Chief Commander) to

GENERAL PAIK SUN YUP, REPUBLIC OF KOREA ARMY

for exceptionally meritorious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outstanding services:

General Paik Sun Yup, Republic of Korea Army, distinguished himself by exceptionally meritorious service in a position of great responsibility while serving as Chief of Staff, Republic of Korea Army, in Korea, from 23 July 1952 to 14 March 1954. He contributed notably to the welding of a powerful United Nations Army which stopped the ruthless communist aggress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His unstinting devotion to duty, comprehension of major problems, and astute judgment were decisive factors in the expan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from ten to twenty divisions and in the improvement of its administration, logistics, training, and combat-effectiveness. Through a continuing display of courageous and intelligent leadership, he instilled a high esprit de corps, tenacity of purpose, and conf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Army. His efforts were reflected in the magnificent manner in which that Army withstood determined communist attacks and inflicted severe punishment upon the enemy. Understanding the drain of the Korean war on the United States economy, he consistently instituted supply economy measures which resulted in important savings to the United States. The meritorious and highly distinguished service of General Paik will be long remembered by the United Nations. His achievements are in keeping with the highest traditions of the military profession and reflect great credit upon himself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WHITE HOUSE

**미합중국 대통령은 1942년 7월 20일 미국 의회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그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대한민국 육군
백선엽 장군에게 공로훈장(최고 사령관)을 수여한다.**

대한민국 육군 백선엽 장군은 1952년 7월 23일부터 1954년 3월 14일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막중한 책임의 위치에서 탁월한 공로로 두각을 드러내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잔혹한 공산주의의 침략을 중단시킨 강력한 유엔군의 합류에 특히 기여하였다. 그의 아낌없는 직무에 대한 헌신과 중대 사안에 대한 이해력, 날카로운 판단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육군이 당시에 20개 사단으로 확대되었고 행정, 병참, 훈련 및 전투 효율성이 향상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는 용감하고 지적인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육군에 높은 단결심과 목표에 대한 집념,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의 노력으로 군대는 공산주의의 공격을 담대하게 견뎌 내었고 적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준엄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한국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그는 공급 경제 조치를 일관되게 도입하여 미국에 중요한 물자 절약을 야기하는 계기를 삼았다. 백선엽 장군의 뛰어난 공로와 공훈을 미합중국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그의 업적은 군사의 최고 전통과 부합하며 그 자신과 대한민국에 대한 큰 공로를 반영하고 있다.

백악관

미국 공로훈장

[사령관]

Legion of Merit
(Degree of Comma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ALL WHO SHALL SEE THESE PRESENTS, GREETING: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ACT OF CONGRESS JULY 20, 1942
HAS AWARDED

THE LEGION OF MERIT (Degree of Commander)

TO

Lieutenant General Paik Sun Yup, 10054, Republic of Korea Army

FOR
EXCEPTIONALLY MERITORIOUS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OUTSTANDING SERVICES

Korea, 17 November 1951 - 22 July 1952

GIVEN UNDER MY HAND IN THE CITY OF WASHINGTON
THIS 25th DAY OF February 1953

Wm. B. H. H. H.
MAJOR GENERAL, USA
THE ADJUTANT GENERAL



Robert J. Stevens
SECRETARY OF THE AR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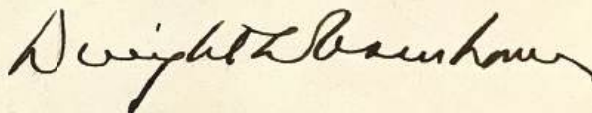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Act of Congress July 20, 1942 has awarded the Legion of Merit, Degree of Commander, to

LIEUTENANT GENERAL PAIK SUN YUP
REPUBLIC OF KOREA ARMY

for exceptionally meritorious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outstanding services:

Lieutenant General Paik Sun Yup, Republic of Korea Army, distinguished himself by exceptionally meritorious service in Korea from 17 November 1951 to 22 July 1952. He organized Task Force Paik with a strength of approximately forty thousand from personnel of the Republic of Korea police, security, youth and regular units with the mission of destroying enemy guerrilla forces in the Chiri-San area. In meshing these elements into an integrated fighting force, he diligently overcame numerous obstacles involving logistics and employment of troops. He accurately evaluated enemy information and formulated a tactical plan which proved successful in trapping and destroying approximately eighteen thousand of the elusive enemy. By extensive personal reconnaissance he maintained contact with enemy evasive tactics and directed effective counter-measures. Upon completion of the anti-guerrilla campaign, he reorganized his command reactivating the II Republic of Korea Corps. The cohesion, tenacity, and confidence of this command was demonstrated by the manner in which it withstood determined attacks and inflicted severe punishment on the enemy. General Paik displayed the highest devotion to duty, outstanding professional ability, keen perception, and marked leadership. The meritorious service rendered by General Paik reflects great credit upon himself and the Republic of Korea Army.



THE WHITE HOUSE

**미합중국 대통령은 1942년 7월 20일 미국 의회법의 승인을 받아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대한민국 육군
백선엽 장군에게 공로훈장(사령관)을 수여한다.**

대한민국 육군 백선엽 중장은 1951년 11월 17일부터 1952년 7월 22일까지 한국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복무하였다. 지리산 지역에서 적 유격대를 격파하는 임무를 가진 대한민국 경찰, 경비대, 청년, 정규 부대의 병력 약 4만 명으로 백 특수임무부대(백야전전투사령부)를 조직했다. 이러한 부대들을 단일 전투부대로 통합하면서, 그는 병참 및 군대 고용과 관련된 수많은 장애물을 꾸준히 극복했다. 그는 적의 정보를 정확하게 평가한 다음 약 18,000명의 적군을 포로로 잡고 사살하는 데 성공한 전술 계획을 수립하였다. 광범위한 개인 정찰을 통해 그는 적의 회피 전술과 접촉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시했다. 유격대에 대응하는 작전이 종료되자 사령부를 재편하고 대한민국 군단을 재활성화시켰다. 사령부는 응집력, 끈기, 자신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공격을 견뎌낸 다음 적에게 가혹한 응징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 백선엽 장군은 직무에 대한 최고의 헌신, 뛰어난 전문 능력, 예리한 인식 능력 및 두드러진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백선엽 장군이 이룩한 공적은 자신과 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큰 공로를 반영한다.

백악관

미국 공로훈장

[장교]

Legion of Merit
(Degree of Offic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ALL WHO SHALL SEE THESE PRESENTS, GREETING: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ACT OF CONGRESS JULY 20, 1942
HAS AWARDED

THE LEGION OF MERIT

Degree of Officer

TO

Brigadier General Paek Sun Yup, Korean Army

FOR
EXCEPTIONALLY MERITORIOUS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OUTSTANDING SERVICES

Korea, June - September 1950

GIVEN UNDER MY HAND IN THE CITY OF WASHINGTON
THIS 22nd DAY OF January 19 51



Charles D. Smith
MAJOR GENERAL, USA
THE ADJUTANT GE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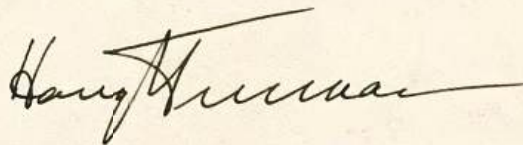
Frank Pace Jr.
SECRETARY OF THE ARM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ized by Act of Congress July 20, 1942, has awarded the Legion of Merit, Degree of Officer, to

BRIGADIER GENERAL PAEK SUN YUP, KOREAN ARMY

for exceptionally meritorious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outstanding services:

General Paek, Commander of the 1st Korean Army Division, distinguished himself by exceptionally meritorious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outstanding services from June to September 1950. When the Communist Forces of North Korea launched a surprise attack against the South Korean Forces he displayed keen perception of military tactics and brilliant leadership in keeping his division in position and delaying the hostile advance. In spite of the enemy's superior force and armament and the withdrawal of friendly forces that exposed his flanks, he skillfully maneuvered his troops and held delaying positions in the Moon San sector along the Han River. Fighting against great odds his unit, by successive withdrawal actions, was able to withstand the main effort of the Communist Forces in that sector and check their advance. Th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 1st Division under his superior leadership assisted immeasurably in stopping the North Korean Army's advance, gaining valuable time and preventing the enemy from overrunning all South Korea. General Paek's leadership, valor and achievements reflect great credit upon himself and the South Korean Army.



THE WHITE HOUSE

**미합중국 대통령은 1942년 7월 20일 미국 의회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 뛰어난 공훈을 세운 공로로 대한민국 육군 준장
백선엽에게 공로훈장(장교)을 수여한다.**

백선엽 장군은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대한민국 육군 제1사단장으로 뛰어난 공훈을 세운 공로로 두각을 드러내었다. 북한 공산군이 한국군에 기습 공격을 가했을 때, 그는 사단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적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 있어 군사적 전술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적의 우세한 병력과 무장, 다른 한 편 아군이 철수하여 측면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부대를 기동시켜 한강변 문산 구역에서 지연 진지를 구축했다. 그의 부대는 큰 역경에 맞서 연속적인 철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구역에서 공산군의 세찬 공격을 견뎌 내고 그들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의 탁월한 지휘 아래 제1사단의 뛰어난 업적은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귀중한 시간을 확보하여 적군이 남한 전역을 제압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었다. 백선엽 장군의 리더십, 용맹, 업적은 자신과 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큰 공로를 반영한다.

백악관

미국 공로훈장

[레지온네어]

Legion of Merit
(Degree of Legionnaire)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EUSAK)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APO 301

IN REPLY REFER TO:

CITATION FOR THE LEGION OF MERIT

IN THE DEGREE OF LEGIONNAIRE

While serving as Commander of the 1st Korean Army Division, Brigadier General PAEK SUN YUP, 10054, Korean Army, distinguished himself by exceptionally meritorious conduct and valor in the performance of outstanding service from 25 June 1950 to 31 August 1950. When the Communist Forces of North Korea launched a surprise attack against the South Korean Forces on 25 June 1950, General Paek displayed keen perception of military tactics and brilliant leadership in keeping his division in position and delaying the advance of the enemy. General Paek continuously exposed himself to enemy fire at the front in order to keep himself informed and make plans. In spite of the superior force and armament of the enemy and the withdrawal of friendly forces exposing his flanks, General Paek skillfully maneuvered his troops and remained in position in the Moon San sectors. After fighting these superior enemy forces for three days, General Paek was left on his own on the North side of the Han river with no communications with South Korean Army Headquarters and with supplies and ammunition exhausted. Through his exceptional leadership, General Paek was successful in effecting the evacuation of five thousand troops, while under heavy enemy fire, to the South

bank of the Han river. Upon reaching Sihung, south of the Han, General Paek quickly reorganized his division and moved into a defensive position, forming the mainstay of the defense on the south bank of the river. Throughout the remainder of the period, General Paek's 1st Division was employed in the sector of the enemy's main effort and through his superior leadership, was able to withstand attack after attack and delay a most formidable enemy. Totally disregarding his personal safety in making reconnaissance to the front under enemy fire, General Paek constantly inspired and encouraged his troops and subordinate leaders to hold their positions. Th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 1st Division under General Paek's superior leadership assisted immeasurably in delaying the advance of the North Korean Army, gaining sorely needed time for the build-up of reinforcements, and preventing the enemy from overrunning all South Korea. General Paek's leadership, valor, and achievements during this critical period reflect great credit upon himself, and are in keeping with the highest traditions of the military service.

BY COMMAND OF LIEUTENANT GENERAL WALKER:

OFFICIAL:

LEVEN C. ALLEN
Maj Gen, GSC
Chief of Staff



T. J. MARNANE
Lt Col, GSC
Acting Adjutant General

주한미국 제8군사령부 본부 APO 301

답장으로 다음을 참조 :

공로훈장(레지온네어) 표창

백선엽 준장(10054)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육군 제1사단장으로 복무하면서 탁월한 공로와 용맹함으로 두각을 드러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대한민국군을 기습 공격하자 백선엽 장군은 군사 전술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사단의 진지를 유지하고 적의 진격을 지연시켰다. 백선엽 장군은 정보를 획득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선에서 계속 적의 포화에 노출되었다. 적군의 우세한 병력과 무장 그리고 아군의 철수로 인하여 측면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선엽 장군은 그의 군대를 능숙하게 조종하여 문산 지역에서 자리를 지켰다. 백선엽 장군은 3일 동안 우세한 적군과 교전한 후, 한국군 사령부와 연락이 끊기고 보급품과 탄약이 소진된 채로 한강 이북에 홀로 남겨졌다. 백선엽 장군은 뛰어난 지휘를 통하여 적군의 맹렬한 포격 속에서 한강 남쪽 기슭으로 5,000명의 군인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강 이남의 시흥에 도달한 백선엽 장군은 재빨리 사단을 재정비하고 방어 진지로 이동하여 한강 남쪽 기슭의 방어의 주축이 되었다.

남은 기간 동안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적의 주력 부문에 투입되었고, 그의 뛰어난 지도력을 통해 연이은 공격을 막아 내었고 가장 무서운 적의 진군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적의 포격을 받고 있는 전선을 정찰함에 있어 자신의 안전을 완전히 무릅쓰고 그의 군대와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고취시키고 격려하였다. 백선엽 장군의 뛰어난 지휘 아래 제1사단의 눈부신 업적은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증원군 증강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주었으며, 적군이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는 데 헤아릴 수 없는 일조를 하였다. 이 중요한 시기에 백선엽 장군의 리더십, 용맹 그리고 업적은 스스로에 대한 크나큰 공로를 반영하며, 최고의 군사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워커(WALKER) 중장의 명령에 따라

공식 서명 : 알렌(LEVEN C. ALLEN)

소장, GSC

참모장

T. J. MARNANE

중령, GSC

부관참모 대행

프랑스 공화국 레지옹 도뇌르(명예 군단 훈장)

Legion d'honneur = Legion of Honor



EXTRAIT

du DÉCRET en date du 15 janvier 1954

publié au J. O. du

portant promotions et nominations dans la LEGION D'HONNEUR.

ARTICLE 1^{er} - Sont promus et nommés dans l'Ordre National de la Légion d'Honneur -

- C O R E E - REGULARISATIONS -

- Pour prendre rang du 5 octobre 1953 -

- AU GRADE D'OFFICIER -

.....
PAIKSUN YUP - Général - Armée Coréenne -

" Chef d'Etat-Major Général de l'Armée Coréenne a été un des principaux créateurs et animateurs de cette armée, levée en un court laps de temps, pour sauver le pays menacé. Par la justesse de ses vues, sa parfaite courtoisie et sa compréhension humaine, a coopéré avec tact et efficacité avec les troupes des Nations Unies. Notamment a porté un intérêt particulier au Bataillon Français de l'O.N.U. auquel il n'a ménagé ni sa sympathie agissante, ni son aide en lui confiant des éléments Coréens qui se sont battus glorieusement dans ses rangs. Mérite l'estime de la France."

.....
CES PROMOTIONS ET NOMINATIONS COMPORTENT L'ATTRIBUTION DE LA CROIX DE GUERRE DES THEATRES D'OPERATIONS EXTERIEURS AVEC PALME.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
signé : Joseph LANIEL

signé : Vincent AURIOL

Le Ministre des Affaires Etrangères
signé : Georges BIDAULT.

Le Ministre de la Défense Nationale et des Forces Armées
signé : R. PLEVEN.

POUR AMPELIATION
l'administrateur de 1^{ère} classe.
BOUZOU
chef du Bureau des Décorations
P.O. le capitaine DEVILLER.

Le Secrétaire d'Etat à la Guerre
signé : P. de CHEVIGNE.

抄 本

1954年1月15日發의 레지옹. 드 노-르 勳章授與에 관한大統領令
第1條 레지옹. 드 노-르 勳章의 國家勳位授與에 關한件.

— 韓 國 —

1953年10月5日附로 第4호 레지옹. 드 노-르 勳章을 授與함.

白 堉 燁 大韓民國々軍

大韓民國々軍 參謀總長 白大將은 國難에 임한 祖國을 守
護하기 爲하여 極히 短時日에 成長한 이軍隊를 育成草創한者의 一人
이다. 正確한 洞察力 充滿無缺한 性品及 人道的 精神의 所有者인 그
는 智謀로 國際聯合軍과의 協同作戰을 效果的으로 遂行하였다.

더욱이 그는 佛蘭西大隊에 格別한 同情的 關心을 베풀
을 아끼지 않았고 나가서는 이大隊에 韓國軍戰斗員을 配屬하여 佛
國大隊將兵과 어깨를 겨누고 榮光스러운 斗爭을 할수 있게 하였다.
佛蘭西國은 그에게 尊敬의 意를 表하는 바임.

上記勳位證으로 海外作戰地域. 크르와. 드. 게-르 勳章의
授與勳章 佩用을 證明함.

佛蘭西共和國大統領
內閣首相

署名: 조제프. 라니엔.

外相

署名: 조루쥬. 비두-

認證者

一等政務官 부주

署名: 벤상. 오리올,

國防相

署名: 르네. 폴레벤

陸軍次官

署名: 드. 셰비비

勳章局長代理 드. 비에르大尉

國防部官印

초본

1954년 1월 15일발의 레자옹 드 노르 훈장수여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레지옹 드 노르 훈장의 국가훈위 수여에 관한 건

－ 한 국 －

1953년 10월 5일부로 제4등 레자옹 드 노르 훈장을 수여함.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국군 참모총장 백대장은 국난에 임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극히 단시일에 성장한 이 군대를 육성초창한 자의 일인이다. 정확한 통찰력 원만무결한 성품 및 인도적 정신의 소유자인 그는 지모로서 국제연합군과의 협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더욱이 그는 유엔군 불란서대대에 각별한 동정적 관심을 베풀어 아끼지 않았고 나가서는 이 대대에 한국군전투원을 배속하여 불란서대대 장병과 어깨를 겨누고 영광스러운 투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불란서국은 그에게 존경의 의를 표하는 바임.

상기 훈위증으로서 해외 작전지역 크르와 드 게르 훈장의

종란훈장 패용을 증명함.

불란서공화국대통령

서명 : 벤상 오리올

내각수상

국방상

서명 : 죠제프, 라니엘

서명 : 르네 폴레벤

외상

육군차관

서명 : 죠루쥬 비도-

서명 : 드 쉘빈네

인증자

일등정무관 부주

훈장국 국장 대리 드 비예르 대위

국방부관인

The French Republic Legion d'honneur

The National Order of the Legion of Honor, formerly the Royal Order of the Legion of Honour, is the highest French order of merit, both military and civil. Established on May 12, 1802 by Napoleon Bonaparte, it has been retained by all later French governments and regimes. It is awarded for excellent civil or military conduct upon official investigation. General Paik received this medal on January 15th, 1954.

프랑스 공화국 레지옹 도뇌르

국가 최고훈장(이전 왕실 최고훈장)은 군대와 시민 모두에게 가장 높은 프랑스의 공로 훈장이다. 1802년 5월 12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가 제정한 이 훈장은 이후 모든 프랑스 정부와 정권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 공식적인 조사에 따라 우수한 시민 또는 군사 행동을 한 인물에게 수여한다. 백선엽 장군은 1954년 1월 15일 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프랑스 공화국 전쟁 십자 훈장(TOE)

Croix de Guerre des Theatres d'Operations Exterieures(TOE)



The French Republic Order Croix de Guerre des Théâtres d'Operation Exterieures

The French Croix de guerre des théâtres d'operations extérieures(war Cross for foreign operational theatres), also called the Croix de Guerre TOE for short, is a French military award denoting citations earned in combat in foreign countries.

It is awarded for commendations for courage during foreign operations.

프랑스 공화국 전쟁 십자 훈장

The French Croix de guerre des théâtres d'operations extérieures(외국 작전 지역 전쟁 십자 훈장), 또는 줄여서 Croix de Guerre TOE라고도 하는 훈장은 해외 전투에서 얻은 표창을 나타내는 프랑스의 군사 표창이다.
해외 작전 중 용맹함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벨기에 왕국 레오폴 드 국왕 훈장

[사령관] (제2935호)

Commandeur de L'ordre de Léopold
(No. 2935)



ROYAUME DE BELGIQUE



Le Ministre de la Défense Nationale
a l'honneur de faire savoir au Lieutenant Général

PAIK - SUN - YUP,

que, par arrêté royal du 16 juin 1954, n° 2935,

il a été nommé

COMMANDEUR DE L'ORDRE DE LEOPOLD (décoration militaire)

pour :

"Services exceptionnels de guerre rendus au Corps de volontaires belges, en Corée."

Il s'estime heureux de pouvoir lui adresser ses félicitations, au sujet de cette nomination.



네덜란드 왕국 [한국 1950] 정의와 자유 십자 훈장

Cross for Justice and Freedom Medal



Kingdom of the Netherlands
Korea 1950
Order Cross for Justice and Freedom Medal

The Dutch Army sent approximately 4,000 men to Korea, where they served as part of the US 2nd Infantry Division. During their time in Korea, the division suffered 123 service members killed in action.

The Cross for Justice and Freedom was established by Royal Decree in 1951. It was originally awarded to military personnel of the NDVN (Netherlands Detachement Verenigde Naties) in recognition of the service during the Korean War.

네덜란드 왕국
한국 1950
정의와 자유 십자 훈장

네덜란드군은 약 4,000명의 병력을 한국으로 보내 미국 제2보병사단의 일원으로 복무하였다. 한국전쟁 동안에 네덜란드 병력 중, 사망자는 모두 123명이다.

정의와 자유에 대한 십자 훈장은 1951년 왕실 칙령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훈장은 원래 한국전쟁 중 복무를 인정받은 NDVN(네덜란드 파견 대대) 군인들에게 수여되었다.

그리스 왕국 대십자 불사조 훈장 [그랜드 커맨더]

Grand Cross of the Order of the Phoenix





ΠΑΥΛΟΣ
ΒΑΣΙΛΕΥΣ ΤΩΝ ΕΛΛΗΝΩΝ

Ἀποστέλλομεν τῷ Ὑπάρχοντι

Paik Sun Yip

τὸν Σταυρὸν τῶν Ἀνωτέρων Ταξιαρχῶν

τοῦ Ἡμετέρου Ταγματοῦ Γεωργίου τοῦ Α'

καὶ παρέχομεν αὐτῷ εἰς τίτλῳ τὸ διαγρᾶμμα τοῦτο
ἐπικεφαλαιωμένον παρ' ἡμῶν καὶ προσεπικεφαλαιωμένον
παρὰ τοῦ Ἡμετέρου ἐκ τῶν Ἐφεσίων Ὑπουργοῦ

Ἐν Ἀθήναις τῇ αὐτῇ τοῦ μηνὸς Ἀπριλίου
τοῦ χριστοῦ ἐκατοστοῦ πενήντου ὡς μωλοῦ
συντηρίου ἔτους



Παυλός

Σταυρίδης

그리스 왕국 국왕 조지 1세 훈장

[그랜드 커맨더]

Royal Order of George I



쿠바 공화국 수훈근무 훈장

Distinguished Service Medal



Republic of Cuba Distinguished Service Medal

Fidel Castro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Cuba after Cuban Revolution in 1959, toppling the ruling government of Fulgencio Batista. This is a Pre-Revolution officer's medal, symbolizing one's dedication to honor, valor and duty. Moreover, the centrally located fasces, olive branches and star represent authority, peace and unity. This medal is given in recognition of military merit. General Paik received this medal prior to the 1959.

쿠바 공화국 공로훈장

1959년 쿠바혁명 후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수상이 되어 풀겐시오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 집권 정부를 전복시켰다.

이 훈장은 인간의 권리, 평등, 자유, 박애를 상징하는 혁명 전 장교 훈장이며 별은 독립과 권위를 상징한다. 이 훈장은 군사적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된다. 백선엽 장군은 1959년 이전에 이 훈장을 수여 받았다.

중화민국 구름과 깃발 훈장

[군사 메달]

Order of the Cloud and Banner





EMBASSY OF THE REPUBLIC OF CHINA
KOREA

Press Release

January 21, 1960

Remarks by His Excellency Wang Tung-yuan of the Republic of China on the Occasion of the Presentation of Decoration to General Sun-yup Paik, Chairman, R.O.K. Joint Chief of Staff, at the Chinese Embassy Seoul, Korea. 11 a.m., January 22, 1960.

General Paik, and distinguished guests:

It is an honor and pleasure for me to present, on behalf of my Government, a decoration to General Paik Sun-yup,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presenting this decoration-the Cloud Banner-is to pay tribute to General Paik's untiring efforts in resolutely resisting communist aggression and promoting closer friendship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our two nations.

You may also recall that six years ago, over twenty thousand Chinese and Korean POWs won their decisive victory in the neutral zone against the communist brain-washing tactics and regained their freedom. I recall vividly the invaluable assistance that General Paik rendered to this cause and to the cause of the free world. It provides added significance on this occasion.

As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facing our common enemies, there is an ever increasing need for further cooperation. As ^agreat leader of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ral Paik will have even greater achievements. May I wish General Paik continuous and boundless success?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

보도자료

1960년 1월 21일

1960년 1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화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합참의장 백선엽 대장의 서훈을 기념하는 왕통위안 주한 중화민국 대사의 축하

백선엽 장군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중화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합참의장 백선엽 장군께 이 훈장을 수여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본 ‘구름 배너’ 훈장을 백선엽 장군께 수여하는 목적은 공산주의 침략을 단호히 저지하고 우리 양국의 친밀한 우호 관계와 군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신 장군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6년 전 중화민국군과 한국군의 포로 2만 명 이상이 중립지대에서 공산당의 세뇌 공작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고 자유를 되찾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당시 백선엽 장군께서 그 대의와 자유 진영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귀한 지원을 제공해 주신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늘의 이 수여식은 더욱 의미 깊습니다.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의 적을 마주하는 가운데, 우리 양국은 더욱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위대한 지도자인 백선엽 장군님은 앞으로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기실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님께 무한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The Republic of China Order of the Cloud and Banner

The Order of the Cloud and Banner also known as the Order of the Resplendent Banner is a military award of the Republic of China(Taiwan). It was instituted on June 15th, 1935 and is awarded in 9 grades for contributions to national security. The insignia of the order features a fluttering yellow flag, surrounded by white clouds on a blue field. This image is surrounded by golden rays.

중화민국 구름과 깃발 훈장

구름과 깃발 훈장은 중화민국의 군사훈장이다. 1935년 6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9등급으로 나뉘어 수여한다. 해당 훈장의 휘장은 다음을 특징으로 한다. 푸른 들판에 흰 구름으로 둘러싸인 펼쳐지는 노란 깃발이 황금 광선에 둘러싸여 있다.

중화민국 대사관

한국

언론보도자료

1960년 1월 21일

중화민국 왕팅웬 대사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백선엽 대장에게 훈장 수여식을 하면서 연설한 내용. 1960년 1월 22일 오전 11시

백 장군님, 그리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제 정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인 백선엽 대장에게 수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이 “클라우드 배너”를 수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백 장군이 공산주의 군대에 단호하게 저항하는 데 보여준 지치지 않는 노력과 우리 두 나라의 우정과 군사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데에 경의를 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6년 전을 회상해보자면, 20,000명 이상의 중화민국 포로들과 대한민국 포로들이 중립지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세뇌 전략에 맞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고 그들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백 장군님이 베풀어주신 이 대의와 자유로운 세계를 위한 대의를 위한 소중한 도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행사에 중요성을 더합니다.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이 공통의 적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는 앞으로도 많은 공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백 장군님의 지속적이고 한계가 없는 성공을 기원합니다.

중화민국 찬란한 별 훈장

(민간 훈장)

Order of Brilliant Star



The Republic of China Order of Brilliant Star 2nd class(Grand Cordon)

Order of Brilliant Star is a civilian order of the Republic of China(Taiwan) recognizing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The order was instituted in 1941 and can be awarded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s.

The center of the medal is a five-pointed star in token of virtue. The name 'Brilliant Star' came from the ancient book of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which says, "The Brilliant Stars, which differs in appearance from time to time, shine upon the nations of the righteous."

There are 9 ranks within the order.

중화민국 찬란한 별 훈장 2급(그랜드 코르돈)

찬란한 별 훈장은 중화민국(대만)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훈장이다. 중화민국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수여 가능하다.

해당 훈장의 중심에는 덕의 상징으로 5각성이 있다. '찬란한 별'이라는 이름은 고대 대역사가의 기록들을 수집한 책인 사기(史記)에 "때에 따라 모양이 다른 찬란한 별은 의인의 나라를 비춘다"에서 따온 것이다.

해당 훈장은 9개의 등급이 있다.

태국 왕국 흰 코끼리 훈장

(나이트 그랜드 꼬르동과 나이트 커맨더)

Order of the White Elephant
(Knight Commander of the Most Exalted Order)



Kingdom of Thailand

Order of the White Elephant of Thailand

The Most Exalted Order of the White Elephant is an order of Kingdom of Thailand. It was established in 1861 by King Rama IV of the then Kingdom of Siam.

태국 왕국

태국의 흰 코끼리 훈장

가장 숭고한 흰 코끼리 훈장은 태국의 훈장이다. 1861년 시암 왕국의 라마 4세에 의해 제정되었다.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MINISTRY OF DEFENCE, BANGKOK, THAILAND

CITATION
THE MOST EXALTED ORDER OF THE WHITE ELEPHANT
(SECOND CLASS)

GENERAL SUN YUP PAIK, Chief of Staff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distinguished himself by exceptional meritorious service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in a position of great responsibility as Commanding General, 1st ROK Infantry Division, when his country was invaded for the first time in 1950, under his brilliant leadership, he made it possible by causing much delay to the advance of the enemies, thus gained time necessary for the buildup of reinforcements and prevented the enemies from overrunning all of South Korea.

As Commanding General of the First ROK Army, he devoted himself to the increased efficiency and combat readiness of South Korea's largest combat organization, thus insured the combat strength of the Free Nations, causing the enemies to sue for armistice.

As Chief of Staff at a later date, he travelled to various countries of the Free World, visiting all military installations and schools, thus not only obtaining more experiences and knowledge in this military field, but also gaining closed relationship and better understanding among the leaders of the Free World.

General Paik's professional competence, as manifested in his intelligent and effective command during the fight against Communist tyranny, engendered the confidence and esteem of all the United Nations' troops fighting against Communist invasion in Korea. These high exemplary achievements of General Paik advanced the prestige and objectives of the United Command and reflected utmost credit upon himself and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 :

Sathit Yudhakarn

SATHIT YUDHAKARN

GENERAL,

UNDER-SECRETARY.

국방차관
국방부, 태국 방콕

서훈
가장 거룩한 흰 코끼리 훈장
(2급)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대장은 지휘 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탁월한 공훈을 달성했다. 1950년 대한민국이 처음 침략되었을 때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적의 진격을 최대한 저지하며 군대 보강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적이 남한 전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았다.

대한민국 제1군단 사령관으로서 백선엽 장군은 한국 최대 전투 부대의 효율성과 전투 준비 태세를 높이는 데 헌신함으로써 자유 진영의 전투력을 확보하고 적의 휴전 요청을 이끌어 냈다.

이후 참모총장으로서 백선엽 장군은 자유진영의 여러 국가들을 순방하며 군사시설 및 학교 시찰을 통해 군사 부문의 경험과 지식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산 독재 정권에 맞선 전투 과정에서 백선엽 장군이 발휘한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지휘력은 그의 전문 역량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로써 한국을 침략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모든 유엔군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백선엽 장군의 이러한 모범적인 성취는 유엔 사령부의 명성을 높이고 목표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고 자신과 조국인 대한민국에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공식 1

사똥 유다카른 (서명)

사똥 유다카른

장군

차관



สมเด็จพระปรมินทรมหาภูมิพลอดุลยเดช สยามมหาราช บรมนาถ
บพิตร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ไทย ผู้เป็นประธานของเครื่อง
ราชอิสริยาภรณ์อันเป็นที่เชิดชูยิ่งช้างเผือก
ขอประกาศแก่ท่านทั้งหลายทั้งปวง ผู้ซึ่งจะได้พบประกาศนี้ให้ทราบว่า
พลเอก ชุน ยัม เป็ก
สมควรได้รับเครื่องราชอิสริยาภรณ์ไกรจักรพระกรุณาโปรดเกล้าโปรดกระหม่อม
พระราชทานเครื่องราชอิสริยาภรณ์ช้างเผือก ชั้นที่ ๒ ช่อ ทวีติยาภรณ์
เป็นเกียรติยศสืบไป ขอให้มีความเจริญสุขสวัสดิ์ทุกประการเทอญ
พระราชทานตั้งแต่วันที่ ๑๖ ตุลาคม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๐๑
เป็นปีที่ ๑๓ ในรัชกาลปัจจุบัน

ผู้รับสนองพระบรมราชโองการ
พลเอก อ. ลมด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



(Translation)

(Manu Regia) BHUMIBOL ADULYADEJ R.

BHUMIBOL ADULYADEJ, King of Thailand, Sovereign
and Chief of the Most Exalted Order of the

WHITE ELEPHANT

To all and singular to whom these presents shall come.

WHEREAS We have deemed it fit and proper to confer on

General SUN YUP PIAK

the 2nd. class of Our Most Exalted Order of the White
Elephant, We, therefore, nominate and appoint him
a Knight Commander of the said Most Exalted Order.

Given on the 16th. day of October B.E. 2501
being the 13th. year of Our Reign.

(Countersigned) General T. KITTIKACHORN

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국왕 하사)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BHUMIBOL ADULYADEJ R.)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이자 군주, 가장 거룩한 흰 코끼리 훈장의 대장은
가장 거룩한 2급 흰 코끼리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백선엽 장군에게 본 훈장을 수여한다.
이로써 백선엽 장군을 해당 훈장의 기사사령관으로도 임명하는 바이다.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통치 13년 B.E. 2501년 10월 16일

(연서) 티 키티카촌 장군

태국 국무 총리

필리핀 공화국 레지옹 도뇌르 훈장

[사령관] (제556호)

Legion of Honor (Commander)
(No. 556)



R E S T R I C T E D

GENERAL HEADQUARTERS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Camp Murphy, Quezon City

MPB/es/73-57

AGP3

GENERAL ORDERS
NUMBER 556

17 June 1959

AWARD OF THE PHILIPPINE LEGION OF HONOR
(COMMANDER)

By direction of the President, pursuant to paragraph 2 e, Section I, AFPR G 131-051, this Headquarters, dated 21 January 1954, the PHILIPPINE LEGION OF HONOR in the degree of COMMANDER is hereby awarded to:

GENERAL SUN YUP PAIK
Chief of Staff, Korean Army

for eminently meritorious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outstanding service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articularly to the Armed Forces for the period from 25 June 1950 to 27 March 1953. As Chief of Staff of the Korean Army, General Paik had shown great concern for the welfare of the 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s to Korea. He collaborated whole-heartedly in giving full recognition and support to the services of the Philippine units in the concerted fight against communist aggression in that area. His unselfish interest and deep concern for the welfare of the Philippine contingents contributed immensely to the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its mission in the fight for the survival of democracy. General Paik's manifestation of profound friendship, sympathetic attitude, unfailing courtesy and cooperation had evoked high praises and admiration of the Filipino troops that fought in Korean soil. By these invaluable achievements, General Paik had contributed in no small measure to the mutual respect and goodwill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BY ORDER OF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OFFICIAL:

MANUEL F CABAL
Lieutenant General, AFP
Chief of Staff

Epimaco V. Orias
EPIMACO V ORIAS
Lt Col, AGS
Acting The Adjutant General

DISTRIBUTION:
"A"

AUREMS

R E S T R I C T E D

필리핀 레종 도노르 상

1959. 7. 17.

(지휘관)

대통령 명령, AFPR G 131-051 1항 2조 e에 따라, 이 사령부는 1954년 1월 21일 지휘관급 필리핀 레종 도노르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백선엽 대장

참모총장, 대한민국 육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3월 27일 까지, 필리핀 공화국 특히 국군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수여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참모총장으로써 백 장군은 필리핀 원정군의 복지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그는 공산군에 대항하는 필리핀 부대에 전폭적인 지원과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필리핀 부대에 대한 이타적이고 깊은 관심은, 부대가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백 장군의 굳건한 우정에 대한 공약, 이해심 많은 태도, 실망시키지 않는 예의와 협력은 필리핀 부대원들이 한국의 땅에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한 칭송과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소중한 공적들로, 백 장군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상호 존중과 선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별 훈장

Order of the Star of Ethiopia



어퍼 볼타 공화국 [현재 부키나파소]

어퍼 볼타 국가의 훈장

[사령관]

National Order of Upper Volta
(Commander)



니제르 공화국 니제르 국가 공로 훈장

Merit du Niger



대한민국 일등수교훈장

[제245호]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1st. rank)(No. 245)



[수여일: 1963. 12. 17.]

대한민국 일등수교훈장

[제245호]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1st. rank)(No. 245)



대한민국 이등수교훈장

[제14호]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2nd. rank)(No. 14)



[수여일: 1970. 8. 15.]

대한민국 이등수교훈장 (제14호)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2nd. rank)(No. 14)



대한민국 이등수교훈장

[제108호]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2nd. rank)(No. 108)



대한민국 이등수교훈장 (제108호)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2nd. rank)(No. 108)



대한민국 금탑산업훈장

[제164호]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Industrial Merit
(Gold Pagoda)(No. 164)



[수여일: 1980. 1. 29.]

대한민국 금탑산업훈장 [제164호]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Industrial Merit
(Gold Pagoda)(No. 164)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

[제1041호]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Industrial Merit
(Stone Pagoda)(No. 1041)



[수여일: 1978. 3. 20.]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 (제1041호)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Industrial Merit
(Stone Pagoda) (No. 1041)



미국 국방부 훈장

[수훈 공공 근무 훈장]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Defense Medal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Medal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Department of Defense Medal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is the highest award that is 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Defense, to a private citizen, politician, non-career federal employee, or foreign national.

Awarded for exceptionally distinguished service of significance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component or function or DoD as a whole. The service or assistance may have been rendered at considerable personal sacrifice and inconvenience and should be motivated by patriotism, good citizenship, and a sense of public responsibility. Normally, it is required that nominees have a direct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most senior officials in the Federal government, e.g., Secretary of Defense, Deputy Secretary of Defense,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Secretary of State.

미국 미 국방부 공공 근무 수훈 훈장

미 국방부 공공 근무 수훈 훈장은 국방부 장관이 민간 시민, 정치인, 비경력 연방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 가능한 최고의 훈장이다. 국방부 구성 요소나 기능 또는 국방부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공로에 대해 수여된다. 서비스 또는 지원은 상당한 개인적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고 제공되었을 수 있으며 애국심, 훌륭한 시민의식 및 공적 책임감으로 동기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국방차관보, 합참의장, 국무부 장관 등 연방 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직접적인 업무 관계를 맺는다.

미국 미국 육군 훈장

[수훈 민간 근무 훈장]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my Medal
(Outstanding Civilian Service Award Medal)



The United States Army Outstanding Civilian Service Award Medal

The United States Army Outstanding Civilian Service Award Medal is awarded to private citizens including civilians not employed by the Army or Army contractors. It is the third highest award that the Department of the Army can bestow upon a civilian. The criteria for the award outline that the Secretary of the Army or another major commander may bestow this award for outstanding service that makes a substantial contribution or is significant to the command concerned.

미합중국 수훈 민간 근무 육군 훈장

미합중국 수훈 민간 근무 육군 훈장은 미국 육군 또는 육군 하청업체에 고용되지 않은 민간인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이는 미 국방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세 번째로 높은 훈장이다. 수여 기준은 육군 장관이나 다른 주요 지휘관이 해당 사령부에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중요하고 탁월한 공로에 대해 이 상을 수여할 수 있다.

프랑스 공화국 국가 공로 훈장 (1965)

The French Republic
Ordre National du Merit
(received in 1965)



The French Republic National Order of Merit

This Presidential award, created by President Charles de Gaulle in 1963, recognizes distinguished service to France, in military as well a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National Order of Merit is the second national Order after the Legion of Honor.

프랑스 공화국 국가 공로 훈장

1963년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이 대통령 상은 공공과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군에서 프랑스에 대한 탁월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한다.

국가 공로 훈장은 레지옹 도뇌르 훈장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국가 훈장이다.

캐나다 공적 훈장

(2005년 7월 13일)

Canada
Order of Merit
(received on July 13th, 2005)



Canada Order of Merit

General Paik was the first to receive the medal from the Governor-General of Canada on July 13th, 2005, for his contributions to actively supporting Canada and Canadian veterans while serving as the chairman of the Korean War 5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ommittee to Commemorate Canada's support to Korea during the Korean War.

캐나다 공적 훈장

백선엽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캐나다를 기념하는 한국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회 위원장으로서 캐나다와 캐나다 참전 용사를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7월 13일 캐나다 총독으로부터 훈장을 수상하였다.

일본

훈 2등 서보장

훈 3등 서보장

Japan
Order of the Sacred Treasure of Japan
Hun 2nd class servo
Hun 3rd class servo



Japan
Order of the Sacred Treasure of Japan
Hun 2nd Class Servo Hun 3rd Class Servo

This decoration is awarded to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state.
This medal was awarded to General Paik Sun Yup for his contribution concerning the resolving of the hijacking of Japan Airline Flight 351 while he was serving as the Korean Minister of transportation. In which he successfully used the hijackers, elements of the Japanese Red Army, into thinking they had safely landed in Pyongyang instead of Seoul. His actions led to their eventual capture without the loss of life. As a result, Japan assis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oul subway system.

일본
훈 2등 서보장
훈 3등 서보장

서보장은 일본 훈장 가운데 하나이다. 백선엽이 교통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김포공항을 담당하고 있을 때 요도호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적군파들이 JAL 일본항공 351편을 평양으로 납치하려던 중 JAL 조종사가 긴급히 김포공항에 착륙을 요청하여 서울 김포 공항에 비상 착륙하였다. 이 사건 후 대한민국, 일본과 북한 정부 간의 힘든 협상 끝에 운수성 정무차관이 129명의 승객 대신 인질이 되어 북한으로 향했다. 그 후 무사히 평양에서 돌아온 운수성 정무차관은 감사의 보답으로 백선엽 장관에게 무슨 요청이든 다 들어 주겠다는 약속에 백 장관은 지하철 기술 지원과 건설 자금 차관을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하철 1호선 설계와 건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971년 4월 지하철 기공식을 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요도호 사건의 공로로 서보장 훈장 2개를 백선엽 교통부 장관에게 수여하였다.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대한민국
Korea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유럽
Europe

아시아
Asia



아프리카
Africa

백선엽
장군
훈장
모음집

COLLECTION OF
GENERAL PAIK'S MEDALS

발행일 2023년 7월 제2판 인쇄

편집·제작 동아에드컴

인쇄 동아에드컴

본 책자는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가 소장한 훈장과 사진자료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사진과 통계 등은 출처를 자료에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